

【자료소개】

「武帝 始建의 4郡」(白鳥庫吉·箭內互) 譯註*

김 지 영** · 위 가 야***

┆ 차 례 ┆

1. 眞番郡
2. 臨屯郡
3. 玄菟郡
4. 樂浪郡
5. 지명의 해석

조선의 땅은 支那의 遼東과 접해있고, 山東半島와 黃海를 사이에 끼고 서로 마주 바라봄으로써 한일 두 민족의 교통은 태고로부터 있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조선의 事蹟은 先秦 문헌에 나타나는 바가 없고 다만 『國語』에 겨우 그 이름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다.

前漢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武帝 이전의 기록이라고는 伏生이 저술한 『尙書大傳』에 箕子가 조선으로 달아났다는 것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司馬遷의 『史記』에서는 朝鮮列傳을 입전하였으며, 武帝의 정벌의 전말을 기록하는 데에 이르러서야 당시에 있어 이 나라의 사정이 비로소 분명해졌다.

後漢의 班固는 『漢書』를 편찬하면서 그 안에 또 朝鮮傳을 수록하였으나 그 글이 완전히 사기를 표절한 데 그치고 조금도 새로운 재료가 더해졌다고

* 白鳥庫吉·箭內互, 「武帝 始建의 4郡」(白鳥庫吉 監修, 箭內互·稻葉岩吉·松井等 撰, 1913, 『滿洲歷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인정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 책의 지리지에는 樂浪·玄菟 2군 條에 군내의 縣邑山川을 열거하고 있어 漢대의 조선의 지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서 귀중한 사료이다.

다음으로 三國시대의 사적을 살펴보면, 『魏志』 東夷傳에 인용된 『魏略』에는 古朝鮮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 글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것으로 史記의 결함을 보충하기에는 족하다.

前漢시대의 조선에 관한 사료는 거의 이들 사서로 한정되며 더욱이 모두 간략하고 상세하지 않다. 그러나 漢 武帝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개설한 樂浪·玄菟·臨屯·眞番 4군의 지리에 대해서도 문헌의 부족으로 인해 예전부터 학자들 간의 의논이 분분할 뿐 아직 해결을 보지 못했다.

樂浪을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지방이라고 하고, 玄菟를 함흥도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으나 眞番에 이르면 應劭가 이것을 뒤에 玄菟郡 즉 고구려 지방이라고 한 것¹⁾ 외에 후세의 학자는 혹은 韓百謙과 같이 『漢書』 조선전에 “眞番과 臨屯이 모두 와서 복속하였다…眞番 辰國이 책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였다.”²⁾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해 그것을 朝鮮·臨屯·辰國의 사이인 貊國의 땅이라고도 하고,³⁾ 혹은 金崙과 같이 『漢書』 武帝紀의 注에 인용된 『茂陵書』에 “眞番郡의 치소는 靑縣으로 長安에서 7천 6백 40리 떨어져 있다…臨屯郡의 치소는 東曉縣으로 長安에서 6천 백 38리 떨어져 있다”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 그것을 臨屯에서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지금의 寧古塔 지방에 비정하기도 했다.⁵⁾ 최근에는 또

1) [원주] 『漢書』 지리지 玄菟郡條 아래 顏師古注 所引.

2) 『漢書』 권95, 朝鮮傳. “眞番·臨屯皆來服屬…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又)壅闕(弗)通.” (2002년 重印된 中華書局판에 근거해 방점 및 ‘又’보입 ‘不’을 ‘弗’로 교정함. 이하 교정은 모두 中華書局판에 근거함)

3) [원주] 『增補東國文獻備考』 권13, 輿地考1 所引.

4) 『漢書』 권6, 武帝紀. “眞番郡治靑縣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臨屯郡治東曉縣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5) [원주] 『增補東國文獻備考』 권13, 輿地考1 所引.

한 이 두 설의 근거가 된 2條의 기사를 결합하여 이에 따라 그것을 樂浪의 南方에 두려고 하는 楊守敬의 새로운 설이 나왔다.⁶⁾ 臨屯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 다수가 그것을 강릉방면이라고 하는데 丁若鏞은 한강 및 임진강의 유역에 그것을 비정하여 경기의 西郊라고 한다.⁷⁾

여러 설의 사실들이 서로 맞지 않음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이들 논설도 다만 대강의 방위를 억측하는 것뿐으로 그 지역과 경계를 말한 것조차 아직 볼 수 없다. 때문에 우리들은 上記의 서적을 골자로 하고 거기에 『後漢書』·『魏志』 및 그 외의 여러 서적에 산견되는 약간의 기사를 참고하여 다시 이 4군의 강역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글 중에 추론이 많은 것은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부득이한 것이다. 독자들이 부디 이것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1. 眞番郡

한 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이곳에 樂浪·玄菟·臨屯·眞番 4군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蒼海郡이라고 칭하는 하나의 군을 遼東의 연변에 개설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군의 위치를 고증하는 것은 그 후에 설치된 眞番郡의 방위를 추측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蒼海郡부터 설명하여 眞番郡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漢書』(권6) 武帝紀를 살펴보면, 元朔 원년 條에 “東夷의 蕤君 南閩 등 口 28만인이 항복하니 蒼海郡을 설치하였다.”⁸⁾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 글만으로는 원래 창해군의 방위를 추정해 낼 방법이 없지만, 『漢書』(권24) 食貨志에 “彭吳가 穢貊 朝鮮을 뚫어 蒼海郡을 설치하니 즉 燕齊의 사이에 靡然發動하였다.”⁹⁾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蒼海郡은 조선 및 예맥에 속하는 영토를

6) [원주] 前漢 地理圖 및 晦明軒稿에 수록된 汪士鐸漢志釋地駁議 참조.

7) [원주] 『大韓疆域考』권1, 臨屯考.

8) 『漢書』권6, 武帝紀. “東夷蕤君南閩等口二十八萬人降 (爲)蒼海郡.” (“置”를 “爲”로 교정함)

9) 『漢書』권24 上, 食貨志 上. “彭吳穿穢貊·朝鮮 置蒼海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

略取하여 개설한 것으로 한반도 서북부에 자리한 고조선에 인접한 지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濊貊의 住地에 대해서는 종래 역사가들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다. 『三國史記』(권35) 지리지에는 “賈耽의 古今郡國志에는 지금 新羅 북쪽 경계인 溟州[지금의 江原道 江陵府]가 대개 濊의 古國이라고 하였으니, 前史에 扶餘가 濊地라고 한 것은 오기인 듯하다”¹⁰⁾라 하였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권44)에는 “江原道는 본래 濊貊의 땅이다.”¹¹⁾라고 했다. 또 柳得恭이 저술한 『四郡志』 古蹟 條에는 “春川府[살펴보건대 옛 靺婁로 新羅는 牛首州라 불렀다. 漢나라 蒼海郡의 땅으로 뒤에 樂浪에 속했다]舊傳에 漢나라 彭吳의 通貊碑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¹²⁾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魏志』와 『後漢書』의 東夷傳에 보이는 濊貊을 지금 조선의 강원도에 위치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武帝 말에 衛氏의 朝鮮을 經略하기 이전에 그 동방에 위치한 지금의 강원도에 蒼海郡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고찰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四郡志』 등의 고찰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故 那珂 박사는 『魏志』(권30) 東夷傳 夫餘條에 “나라에 (濊城이라는 이름의) 옛 성이 있으니 대개 본래 濊貊의 땅이었다.”¹³⁾라고 한 것에 의거해 彭吳가 개통한 예맥은 즉 漢魏 시대의 夫餘國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蒼海郡을 조선 및 예맥의 땅을 분할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이 예맥은 조선의 땅에 접속된 곳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那珂씨의 설명같이 이 예맥을 부여 즉 지금의 農安·長春 주변으로 비정하는 것은 그

10) 『三國史記』권35, 雜誌4, 地理2, 新羅. “賈耽古今郡國志(云) 今新羅北界溟州[今江原道江陵府] 蓋濊之古國 前史以扶餘爲濊地 蓋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년 修訂 3版, 『譯註 三國史記』1에 근거해 ‘云’자 보입. 이후 『삼국사기』 내용 보정 및 방점 등은 모두 동일판에 근거함)

11) 『新增東國輿地勝覽』권44. “江原道本濊貊之地.”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12) 『四郡志』 古蹟. “春川府[按古靺婁 新羅號牛首州 漢蒼海郡地 後屬樂浪]舊傳有漢彭吳通貊碑 今無.”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1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 (‘名濊城’ 보입)

住地와 조선과의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이 사이를 하나의 郡으로 삼는다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漢代의 소위 예맥은 부여·고구려를 시작으로 하여 遼東의 塞外로부터 조선의 동북 두 방면에 널리 퍼져 있는 Tunguse민족을 부르는 범칭이기 때문에 彭吳에 의해 經略된 예맥은 반드시 강원도의 예맥 혹은 부여국의 예맥에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史記』(권129)¹⁴⁾ 貨殖傳 燕條에서 “北으로 烏桓 夫餘와 이웃하고 東으로 穢貊 朝鮮 眞番의 利와 얽혀있다.”¹⁵⁾라고 한 것에 보이듯 예맥은 부여와는 다른 예맥임이 분명하다. 또한 『漢書』(권28) 지리지 燕條에 “玄菟와 樂浪은 (한)武帝 때 설치되었으니 모두 朝鮮, 穢貊, 句麗 蠻夷이다.”¹⁶⁾라고 한 것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맥은 고구려와 다른 예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역시 貊의 일종이라는 것은 『魏志』(권30) 동이전 高句麗條에서 王莽이 高句麗侯 駒를 징벌하려던 때에 嚴尤가 諫諍한 “貊人이 法을 범하였으나 그 죄는 駒가 일으킨 것이 아니니 마땅히 安尉해야 합니다. 지금 저들에게 大罪를 씌우게 되면 마침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¹⁷⁾라는 것과 『後漢書』(권85) 동이전 高句麗條에 “句麗는 一名 貊이라고도 부른다. 別種이 있어 小水에 의지해 거주함으로 인하여 小水 貊이라 하였다.”¹⁸⁾라고 하였으며, 또한 國史에 고구려를 貊이라고도 쓰고 이것을 Koma라고 혼독했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예맥민족이 만연한 범위가 이미 이와 같이 광대하다면 彭吳가 개척한 예맥은 지금의 강원도 및 옛 부여의 땅에 살고 있던 예맥이 아니라 압록강 유역 즉 고구려의 본지에 거주하던 예맥이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이 고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後漢書』(권85)¹⁹⁾ 동이전 濊條에

14) 원문에는 권119로 되어 있으나 『史記』 貨殖傳은 권129가 맞다.

15) 『史記』 권129, 貨殖傳. “北隣烏桓·夫餘 東綰穢貊·朝鮮·眞番之利.”

16) 『漢書』 권28, 地理志. “玄菟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 穢貊 句麗蠻夷.”

17) 『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貊人犯法 罪不起(于)駒 且宜安尉 今猥被之大罪 恐其遂反.” (‘於’를 ‘于’로 교정)

18)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句麗一名貊耳 有別種 依小水(爲居) 因(名)曰小水貊.” (‘爲居’와 ‘名’ 보입)

元朔 元年²⁰⁾에 濊君 南閭 등이 右渠를 배반하고 28만구를 거느리고 遼東으로 와서 예속하였다. 이에 武帝가 그 땅을 蒼海郡으로 삼았다가 수년 후에 파하였다.²¹⁾

라는 문구로도 증명된다. 右渠는 조선왕 衛滿의 손자로 창해군의 예맥은 무제의 元朔 원년까지는 위씨의 조선에 예속되었다. 그렇다면 창해군은 예맥의 일종이었던 고구려의 住地에 설치했던 것으로 지금의 압록강 상류 유역 및 修佳江 유역에 있었던 것이다.

蒼海라는 이름은 東海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渤海를 지칭한다. 그 증거는 『隋書』(권64) 來護兒傳에

遼東의 군역에 (내)護兒가 樓船을 거느리고 滄海로 향하여 溟水로 들어오니 平壤과 60리 거리에서 高麗와 서로 만났다. 진격하여 그들을 大破하고 승세를 타고 바로 성 아래로 가서 그 郭郭을 파괴하였다.²²⁾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滄海는 즉 蒼海로 渤海의 한 칭호이다. 또 『唐書』(권39) 지리지 河北道條에 “滄州 景城郡은 본래 渤海郡이었다.”²³⁾라는 것에서 보이는 滄州는 발해의 別名인 滄海에서 유래하여 선택된 명칭이다. 창해군이 漢國으로부터 東方에 이르는 것은 『漢書』(권24) 食貨志에 “東으로 滄海郡을 두었다”²⁴⁾라고 한 것과 또 『史記』(권20) 平準書에 “東으로 滄海의 郡에 이른다.”²⁵⁾라고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漢인이 기록한 방위가 반드시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부여 방면까지

19) 원문에는 권115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東夷列傳은 권85가 맞다.

20) 한 문제의 연호로 기원 전 128년.

21) 『後漢書』권85, 東夷列傳. “元朔元年 濊君南閭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22) 『隋書』권64, 列傳29, 來護兒. “遼東之役 護兒率樓船 指滄海 入自溟水 去平壤六十里 與高麗相遇 (進)擊 大破之 乘勝直達城下 破其郭郭.” (‘追’를 ‘進’으로 교정)

23) 『唐書』권39, 地理2. “滄州景城郡上 本渤海郡.”

24) 『漢書』권24, 食貨志. “東置滄海郡.”

25) 『史記』권20, 平準書. “東至滄海之郡.”

도 또한 東方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史記』 및 『漢書』가 부여를 동방에 두지 않고 북방에 두었다는 것은 『史記』(권129) 貨殖傳에 ‘北으로 烏桓, 夫餘와 접하고 東으로 穢貊 朝鮮 眞番의 利와 얽혀 있다.’²⁶⁾라고 한 것 및 『漢書』(권28下) 지리지에 ‘北으로 烏丸, 扶餘와 닿아 있고, 東으로 眞番의 利와 바꿀 수 있다.’²⁷⁾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해군이 부여의 땅에 있지 않고 조선의 북방 요동 塞外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漢이 압록강 유역에 있던 예맥을 창해군이라 한 것은 마치 당이 長白山 동북에 있던 靺鞨을 渤海郡이라고 한 것에 비견할 수 있다. 賈耽의 道里記에 의하면 渤海의 朝貢道는 國都에서 압록강으로 나와 거기에서 渤海를 航行하여 東萊에 이르는 것을 順路라 하였다.²⁸⁾ 그래서 漢國으로부터 滄海郡에 이르는 것 역시 이 항로를 경유했다면 발해군 및 창해군의 명칭은 모두 이것과 관계있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의 고증한 바에 의하면 漢의 창해군은 지금의 압록강 상류 지역 및 동가강의 全流 지역을 포용하는 지역에 위치했다고 생각되며 衛氏가 다스리던 眞番國은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데서 구할만한 곳이 없으며 무제의 창해군은 대개 조선의 眞番國에 설치된 것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漢史가 眞番國 혹은 眞番郡에 대해 기재한 바를 고찰해봐야 하며 그 결과가 과연 서술한 바의 추측에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제가 조선에 설치한 4군 중에 樂浪·玄菟·臨屯의 3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방위의 대체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유독 진번군에 대해서는 이와 관계된 기사가 극히 근소하기 때문에 예부터 이 郡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의논이 분분하여 아직 통일된 바가 없다. 그

26) 『史記』권129, 食貨志. “北隣烏桓·夫餘 東綰穢貊·朝鮮·眞番之利.”

27) 『漢書』권28 下, 地理志 下. “北隙烏丸扶餘 東賈眞番之利.”

28) [원주] 新唐書 권43 下 地理志에 가탐이 기록한 入四夷之路가 있어 소위 道里記라 하는데 그 안에 말하기를 “自鴨綠江口舟行百餘里…至泊灼口得渤海之境又泝流五百里至丸都縣城…又東北泝流二百里至神州又陸行四百里至顯州天寶中王所都又正北如東六百里至渤海王城.”이라 하였다.

런데 그 문제로 이와 같은 곤란을 겪는 것의 한 원인으로는 『漢書』에 인용된 顏師古의 注에

臣瓚이 말하기를 茂陵書에 臨屯郡의 치소는 東曉縣으로 長安에서 6,138 리 떨어져 있고 15縣이며, 眞番郡의 치소는 靑縣으로 長安에서 7,640리 떨어져 있고, 15縣이다.²⁹⁾

라고 한 글 때문이다. 臨屯郡은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의 강원도 및 함경도의 남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그 治所였던 東曉縣이 長安에서 6,138리 떨어진 데 대해 眞番郡의 治所였던 靑縣이 7,640리 정도라면, 진번군은 임둔군에 비해 더 먼 지역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과 『東國文獻備考』에 인용된 金崙의 설명에 “眞番은 臨屯보다 더니 즉 우리나라 경계 내에서 찾을 수 없으나 지금의 寧古塔이 있는 근처로 보인다.”³⁰⁾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어떤 논자는 『漢書』(권95) 조선전과 『史記』(권115) 조선전에 “眞番과 주변의 衆國이.”³¹⁾라고 한 것과 “眞番과 辰國이”³²⁾라고 기록한 것에서 眞番國은 辰國 즉 辰韓의 근방에 위치하여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것으로 억측한다. 그렇지만 이들 의논은 어떤 것도 고립된 기록 문자에 얽매인 추측을 하고 있지 결코 『史記』·『漢書』의 本傳을 精讀하고 대체적인 위에서 이 나라의 방위를 고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史記』 조선전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朝鮮王(위)滿은 옛 燕人이다. 처음 燕의 전성시대로부터 일찍이 眞番, 朝鮮을 경략하여 복속시키고, 吏를 두었으며 鄣塞를 쌓았다. 秦이 燕을 멸한 뒤 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다.³³⁾

29) 『漢書』, “臣瓚曰 茂陵書 臨屯郡治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眞番郡 治靑縣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30) 『東國文獻備考』, “眞番遠於臨屯則我國界內不可得 似在今寧古塔近處矣.”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31) 『史記』 권115, 朝鮮列傳. “眞番衆國.”

32) 『漢書』 권95, 朝鮮傳. “眞番辰國.”

라고 한 글을 잘 살펴보건대, 戰國時代 燕國이 眞番·朝鮮의 일부를 略取하여 遼東의 연변에 鄣塞를 축성하였다면 진번국은 조선에 인접하는 한편으로는 요동의 外徼에 연속한다고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또 조선국을 함부로 영유하고 있던 위만이 진번국도 복속시키고 요동 塞外에서 위력을 떨친 것은 『史記』(권130) 太史公自序에 “燕丹 시기에 遼間이 散亂하니, (위)滿이 그 亡民을 수습하여 海東으로 모았다. 眞番에 집결하여 塞를 보전하며 外臣이 되었다.”³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 북방 요동 사외에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은 압록강 및 동가강의 유역을 제외하고는 달리 찾을만한 장소가 없다. 그러면 진번국이 이 지역에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應劭가 “玄菟는 본래 眞番國이다.”³⁵⁾라고 한 것은 모두 사실을 전한 것이다. 이 玄菟郡은 漢이 元封 2년에 朝鮮을 멸망시켰던 때에 설치한 현도군이 아니라 昭帝 始元 5년³⁶⁾에 임둔·진번을 파한 후에 이르러 고구려 서북으로 옮겨간 현도군을 말한다. 따라서 이 현도군이 압록강 상류 지역과 동가강 전체 유역 및 興京의 부근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며³⁷⁾ 『東國文獻備考』(권7)에

대략 漢이 五國의 땅으로써 四郡을 삼았다. 그리고 朝鮮을 樂浪으로, 濊貊을 臨屯으로 沃沮를 玄菟로 삼았다. 모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유독 高句麗 2천리 땅만을 어찌 다만 한 개의 현으로 삼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眞番일 것이다.³⁸⁾

33) 『史記』권115, 朝鮮列傳.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34) 『史記』권130, 太史公自序. “燕丹散亂遼間 滿收其亡民 厥聚海東 以集眞番 葆塞爲外臣.”

35) [원주] 史記 朝鮮傳 眞番 注

36) 기원 후 82년.

37) [원주] 자세한 것은 위의 글에 나온다. (『滿洲歷史地理』 원문 100-101쪽).

38) 『東國文獻備考』권7, “大率漢以五國地爲四郡 而朝鮮爲樂浪·濊貊爲臨屯·沃沮爲玄菟 皆有明證 獨高句麗二千里地 豈可只爲一縣哉 是必爲眞番也.”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라고 하여 진번군을 고구려의 故地에 비정한 것은 정확한 것이다.³⁹⁾

이상의 고증에 의하여 진번군이 압록강 및 동가강 유역에 있고 나중에 현도군과 같은 곳이 분명하다면 이 郡은 元朔 원년(128)에 무제가 개설한 창해군의 강역과 완전히 꼭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곳에 있었던 蕤君 南呂 등은 어째서 衛右渠를 배반하고 漢에 내속을 구하는데 이르렀는가?

이 사정을 진술하기에 이르러 우리는 먼저 독자들에게 『史記』(권115) 조 선전에 보이는 아래의 글을 고찰할 것을 바란다.

孝惠·高后의 때에⁴⁰⁾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니 遼東太守가 (위)滿을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여, 塞外의 蠻夷를 지켜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고; 諸蠻夷의 君長이 입조하여 天子를 알현하는 것을 막지 말도록 하였다. 상소를 듣고 上도 그것을 허락하니 이로 인해 (위)滿이 兵威와 財物을 얻어 주변 小邑을 침략해 항복시키니, 眞番과 臨屯도 모두 와서 복속되어 그 땅이 수천리가 되었다.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인 右渠에 이르러서 피어낸 漢의 亡人이 점차 많아졌으며 또한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지 않았으며; 眞番 인근의 여러 國들이 上書하고 天子를 알현코자 하는 것 또한 막아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⁴¹⁾

이 글에 의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漢은 遼東의 故塞를 수리하여 東

39) [원주] 故 珂那 박사도 이 설을 따라 거듭 진번군의 치소 삼현에 대한 설을 서술하여 말하되 “삼현은 압록강 상류가라고 생각되지만 장안과의 거리가 7,640리라는 것은 道程이 너무 멀므로 7천은 5천의 잘못된 기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였다.(『史學雜誌』 제5권 27쪽) 삼현의 위치는 본래 알 수 없으나 『康熙字典』 雪字 해설에 “集韻軒甲切音貶地名 雪陽障在樂浪.”이라는 것이 보인다. 만약 이 雪陽障이 진번군의 치소인 삼현과 관계가 있다면 이 障은 한서 지리지에 보인 雲障과 연락하는 장새로 秦 때에 조선 진번 2국을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 雪과 雲은 字形이 비슷한데서 옮겨 적는 사이에 혼동하여 잘못 쓴 것은 아닐까. 雪陽障은 雪山脈에 기인하여 설치된 장새로 생각되며 예전에 雪縣은 이 산맥의 북(陰)에 위치하고 낙랑군에 접근했던 곳일 것이다.

40) 기원전 194년~기원전 188년 경

41) 『史記』권115, 朝鮮列傳. “會孝惠·高后時天下始定, 遼東太守即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之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夷의 침략을 방어했지만 항상 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왕 衛滿의 무력에 의지하고자 하여 그를 漢의 外臣으로 삼아 塞外의 蠻夷에 제재를 가할 자유를 주었다. (위)만은 이 약속에 의해 혹은 재물을 가지고 유인하고, 혹은 병력을 가지고 협박하여 점점 자국에 접근한 夷族을 항복시켰다. 이들 蠻夷 중에 최고로 강성한 것은 진번과 임둔 2국이었는데 임둔국이 강원도 및 함경도의 남부에 있었던 것은 뒤에 설명한 바와 같으며, 요동 및 조선에 인접한 것은 진번국이었다. 때문에 동방에서 요동의 변경을 침입하여 漢國을 괴롭힌 것은 주로 이 國民일 것이며 더욱이 武帝의 시기에 南呂 등에게 통솔되어 漢에 내속을 구한 것도 사실은 이 濊族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예맥은 위만의 시기에 조선의 속국이 되었지만 이들은 원래 독립하여 자유롭고자 하여 外國의 통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武帝의 시대에 이르러 명분상 내속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漢의 위세에 의해 조선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도모한 것이다. 당시 武帝는 마침 사망에 토지를 개척하려는 뜻이 있었는데, 특히 조선의 강대함을 싫어하던 때였기 때문에 藏君 南呂 등이 내부를 구해 온 기회를 잡아 마침내 元朔 원년 彭吳로 하여금 그 땅에 창해군을 설치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武帝가 일단 조선왕 右渠에 속해있던 예맥을 이탈시켜 창해군을 설치하였으며 이 점령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그 기세로 조선을 향하여 일대 타격을 가하니 右渠는 이 토지에 대한 미련을 끊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漢國은 長成 이북에 匈奴라는 강한 적군을 만나 멀리 병사를 동방으로 쫓아 출격하여 조선을 토벌할 수 없었기에 武帝는 元朔 3년 公孫弘의 간언을 받아들여 마침내 창해군을 放棄하였다. 그래서 이 郡에 예속된 예맥의 운명에 대해서는 漢史는 다시 기록하지 않았으며, 元封 2년에 武帝가 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여기를 4군으로 할 때 그 하나의 군이 진번군이었음에 기인해 살펴볼 때 창해군의 濊民은 다시 右渠의 지배로 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제의 시대에 遼東 塞外에 대한 漢과 조선과의 분쟁

이 생긴 지역은 지금의 압록강 및 동가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볼 수 없으니 창해군 및 진번군이 모두 이 지역 내에 있었다는 것은 서술한 사실들에 의해서도 역시 추측할 수 있다.

2. 臨屯郡

漢 4군은 대체로 朝鮮의 영역 내에 있는 國을 기초로 하여 설치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진번군이 옛 眞番國에 설치되었던 것처럼 임둔군은 옛 臨屯國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임둔국이 조선에 領屬되었던 것도 역시 衛滿의 시대였던 것은 『史記』 朝鮮傳에 “滿이 兵威와 財物로 인근의 소국들을 침범하여 항복시키니 眞番·臨屯이 모두 와서 복속하였다.”⁴²⁾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미 앞서서도 서술했던 것처럼 『茂陵書』에 의하면 임둔군은 東甌縣을 다스리고 長安과의 거리가 6,138리에 있으면서 15縣을 영유하였다. 여기서 동이현의 이름은 『漢書』 地理志의 樂浪郡 屬縣 중에 보인다. 낙랑군은 昭帝 시기에 진번·임둔 2郡을 폐지하고 이것을 낙랑·玄菟 2군에 병합한 후의 것이다. 그렇다면 임둔군의 치소였던 동이현의 이름이 지리지의 낙랑군에 보여지는 것은 임둔군이 낙랑군에 병합되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둔군의 방위는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때문에 혹자는 이를 낙랑군의 동쪽에 위치했다고 하고, 혹자는 이것을 낙랑군의 남쪽에 비정한다. 『後漢書』(권33)의 郡國志를 보면 낙랑군의 속현에는 朝鮮·誦邯·溟水·貪資·占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樂都의 18현을 들고 있다. 지금 이것을 『漢書』(권28 하)의 지리지에 실려 있던 낙랑군의 속현이었던 朝鮮·誦邯·溟水·貪資·黏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

42) 『史記』 권115, 朝鮮列傳. “滿以兵威財物 侵降其旁小國 眞番·臨屯 皆來服屬.”

彌·吞列·東隴·不而·蠶台·華麗·邪頭昧·前莫·夫租 25현과 대조해 보면, 『前漢書』에 舍資·黏蟬·遂成이라고 된 것을 『後漢書』에서는 貪資·占蟬·遂城이라고 쓰고 『전한서』의 吞列이 『후한서』에서는 樂都라고 되어 있다. 『전한서』에 기록된 東隴이하 夫租에 이르는 7현의 이름은 『후한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7현을 통해 임둔군의 방위를 추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魏志』(권30) 동이전 東沃沮조를 살펴보면

漢 武帝 元封 2년(109) 朝鮮을 정벌하여 滿의 손자 右渠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郡으로 삼으니, 沃沮城을 玄菟郡으로 삼았다. 뒤에 夷貊에게 침략되어 郡을 句麗의 西北쪽으로 옮기니, 지금의 玄菟 故府가 이것이다. 沃沮는 樂浪에 환속되었다. 漢은 土地가 廣遠하므로 單單大領의 東쪽을 나누어 東部都尉를 설치하였는데 不耐城에 治소를 두고 별도로 領東 7縣을 다스리도록 하였으니, 이 때 沃沮 역시 모두 縣으로 삼았다.⁴³⁾

라고 되어 있고, 또 『위지』 동이전 濊조에는 “單單大山領의 西쪽은 樂浪에 속하게 하고, 東쪽의 七縣은 都尉가 주관토록 하였으니 모두 濊를 民으로 하였다.”⁴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單單大山領이 지금의 평안도 및 황해도와 함경도 남부 및 강원도 북부를 분할하는 大關嶺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魏志』의 이른바 領東 7현은 이 분수령의 동쪽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7현이 『한서』 지리지에는 보이면서 『후한서』 군국지에는 빠져있는 東隴 이하 夫租에 이르는 7현인 것이다. 그런데 이 7현 중 不而縣이 『魏志』(권28) 卍丘儉傳의 不耐城이며 동부도위의 治소이므로 그 영동 7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三國史記』(권1) 신라 儒理尼師今 17년조에

4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治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帝”를 보입함)

44)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以東七縣都尉主之 皆以濊爲民.”

華麗와 不耐 2縣의 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기병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貊國의 帥가 曲河 서쪽에서 군사로써 막아 물리쳤다.⁴⁵⁾

라는 데서 보이는 華麗는 不耐의 근처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것으로도 또한 7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說文』에 “魴鮪는 濊의 邪頭國에서 나왔다”⁴⁶⁾라고 되어 있는데 이 邪頭가 『漢書』의 邪頭昧가 생략된 것이고, 그 사람이 濊인 것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邪頭昧도 또한 영동 7현의 하나이다. 夫租는 那珂·箭內·樋口 세 사람이 고찰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옥저의 異譯으로 天租를 잘못 배긴 것이므로⁴⁷⁾ 이것도 역시 영동 7현의 하나이다. 東曠은 앞서서도 서술한 것처럼 임둔국의 치소에 있었으며 그 이름이 『한서』에는 있고 『후한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7현의 앞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볼 때 그 영동 7현의 하나임을 추측할 수 있다. 前莫·蠶台의 2현에 대해서는 문헌의 결핍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이 2현의 앞뒤에 기록된 5현이 모두 영동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도 역시 7현 가운데 속해 있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영동 7현이 낙랑군에서 분리되어 동부도위의 관할로 옮겨진 것은 『魏志』 및 『後漢書』 동이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土民이 강성해서 그것을 遠方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土人의 일부가 沃沮이면서도 그 대부분이 濊貊이라는 것은 『위지』 동이전 濊조에서, ‘영동 7현은 도위가 주관하였는데 모두 濊를 民으로 삼는다’⁴⁸⁾고 한 것에서 분명해진다. 또 옥저민족의 일부가 영동 7현 가운데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은 夫租縣(마르게는 天租)의 沃沮라는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측처럼 옥저민족이 武帝 때 현도군에 속하였다는 것은 『위지』(권30) 동이전에서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4군을 설치하면서 沃沮城을 현도군으로 삼았다는

45)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17년. “華麗·不耐二縣人連謀 率騎兵 犯北境 貊國 帥以兵要曲河西 敗之”

46) 『說文』. “魴鮪出濊邪頭國.”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47) [원주] 史學雜誌 제5편 294쪽, 同誌 제23편 196쪽 및 本書 79쪽 참조.

48)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것에서 명확해진다.

이처럼 영동 7현의 일부가 일찍이 현도군에 속해졌다고 한다면 그 대부분을 구성한 濊民族은 임둔군의 관할이었다. 그렇다면 임둔군의 강역을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먼저 漢魏 시대에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예맥민족의 주거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민족의 강역을 약간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위지』 및 『후한서』이다. 『위지』(권30) 동이전 濊조에는

濊는 남으로 辰韓과 北으로는 高句麗·沃沮와 접했으며, 東으로 大海에 닿아있으니, 지금 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땅이며, 戶는 2만이다.⁴⁹⁾

이라고 하였다. 또 『후한서』(권85) 동이전에서 말하는 바도 거의 이와 같다. 다만 『魏書』에 조선이라고 한 것을 낙랑이라고 했을 뿐이다. 진한이 지금의 경상도 동부 및 북부에 자리한 것은 논할 것도 없고 또 후한 시대의 낙랑군은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에서 이른 바 영동 7현을 제거한 것으로 그 강역은 거의 무제 시기의 낙랑군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위지』에서는 그것을 “지금의 조선”⁵⁰⁾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漢魏 시대에 이러한 예민족의 주거지는 남으로는 지금의 沙吉峯·小白山산맥 등으로써 경상도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分水嶺산맥으로써 평안·경기·황해 3도에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는 東海⁵¹⁾에 닿아 있다. 따라서 지금의 강원도 대부분이 그 강역에 속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북쪽 경계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는 다른 세 방향처럼 명료하지는 않다. 『위지』 및 『후한서』에 의하면 예의 북쪽 경계는 북옥저 및 고구려와 접해 있으며 이 두 나라의 남쪽 경계와 접해있다고 규정된다.

49)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50)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今朝鮮.”

51) 원문에는 日本海. 이후 東海로 수정표기함.

3. 玄菟郡

한 武帝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4郡으로 나누었던 시기에 沃沮 지역을 현도군으로 삼은 것은 『魏志』 및 『後漢書』에서 말한 바이다. 이런 이유로 漢魏 시대의 옥저 민족의 강역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현도군의 경계 또한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다. 『魏志』(권 30) 동이전 동옥저조를 살펴보면

동옥저는 고구려 蓋馬大山의 동쪽, 大海에 닿아 있다. 그 지형은 동북이 협소하고 서남으로 길어서 천리 정도였으며, 북으로는 挹婁·夫餘와 남으로는 濊貊과 접해있다. 戶는 5천이다.⁵²⁾

이라고 했으며, 『後漢書』(권85) 동이전에서 말하는 것 역시 이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개마대산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분할하는 長白山의 남쪽 지맥인 狼林山脈이며 또 大海라는 것은 東海를 말한다. 옥저 지역은 동북이 좁고 서남으로 길어서 길이가 천리라고 하므로, 지금의 定平·咸興 이북 함경도로 비정할 수 있다. 그 지형에 있어서나 그 里程(길이)에 있어서 『魏志』가 동옥저에 대하여 말한 것과 부합한다. 동옥저는 또한 그 북쪽 경계가 읍루와 부여와 접한다. 『魏志』 동이전 挹婁조를 살펴보면

挹婁는 夫餘 東北 천여리에 있으며, 대해에 닿아있고, 남으로 북옥저와 접해 있으며, 그 북쪽 끝은 알지 못한다.⁵³⁾

라고 하여, 북옥저의 북쪽 경계였고 그 동쪽 한 부분(一半)은 읍루와 접해 있으며, 서쪽 한 부분(一半)은 부여와 닿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읍루와 북옥저와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가 서술된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52) 『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戶五千.”

53) 『三國志』 권30, 魏書30, 東夷傳.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않지만, 『魏志』 북옥저조에는

그 풍속은 남북이 모두 같으며 읍루와 접해있다. 읍루가 배를 타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하니 북옥저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여름(夏月)에는 늘(恆) 산의 바위 깊은 동굴에 있으면서 수비하였고, 겨울(冬月)에 얼음이 얼어 뱃길이 막히면 이에 내려와 촌락에 거하였다.⁵⁴⁾

라고 하였다. 그런데 함경도의 해안에 닿아 있으면서 동절기에 어는 곳은 오직 豆滿江 어귀 부근으로 그 이남부터는 얼음이 어는 것을 볼 수 없다. 읍루가 동절기에 항해한 뱃길은 단지 두만강이며, 해양은 아니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북옥저는 이 하천으로 읍루와 경계를 접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그 북쪽 경계의 서쪽 한부분이 어느 곳에서 부여와 접해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부여의 강역을 살펴보면, 『魏志』 동이전 夫餘조에

부여는 長城의 북쪽에 있으며 玄菟와의 거리는 천리이고, 사방 2천리 정도이며 戶는 8만이다. (...중략...) 山陵廣澤이 (넓고) 동이 지역에서 최고로 평평하고 넓다.⁵⁵⁾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魏 시대의 현도는 지금의 奉天이므로⁵⁶⁾ 이곳으로부터 북쪽 2천리에 정말로 그 도성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것은 아마 哈爾濱 주변에 위치한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松井 문학사의 고증에 의해서 부여의 수도는 지금의 農安 부근이라고 알려졌으므로,⁵⁷⁾ 이 나라의 남쪽 경계는 松花江 상류 유역 및 그 지류인 輝發江 유역에 이르렀을 것이다. 『晉書』(권97)⁵⁸⁾ 四

54)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月(恆)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冰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恆’을 ‘恆’으로 교정함)

55)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夫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方可二千里 戶八萬 (中略) (多) 山陵廣澤 於東夷之域 最平(敞).” (‘多’ 보입, ‘敞’는 ‘敞’으로 수정함)

56) [원주] 제3편 현토군 고구려현 부분 참조. (『滿洲歷史地理』 원문 215쪽)

57) [원주] 제1권 제1편 요의 동경도 용주 부분 참조.

夷傳 夫餘國조에 “太康 6년,慕容廆의 습격을 받아 격파되니, 그 왕 依慮가 자살하고 子弟들은 도망가 沃沮를 지켰다”⁵⁸⁾라고 적혀 있으므로, 서진 시대에도 옥저와 부여가 접근하여 서로 왕래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好太王碑文」을 살펴보면

(永樂)20年年 庚戌, 東夫餘는 옛적 鄒牟王의 屬民이었다. 도중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군대가 餘城에 이르렀다.⁶⁰⁾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비문에는 魏 시대의 부여를 북부여라고 불러 이를 동부여와 구별했으므로 이 동부여가 『위지』의 부여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好太王 때에 부여의 남은 무리가 여전히 장백산 부근에 할거한 것을 보면 漢魏 시대의 부여가 이 주변까지 세력이 미친 것을 헤아려 알 수 있다. 이제 이상의 논증을 통해 옥저의 강역을 생각해 보면, 서쪽은 狼林山을 근간으로 하는 장백산의 남쪽 지맥으로서 고구려와 서로 접하고, 북쪽 경계의 서편은 장백산을 사이에 두고 부여에 이어지며, 그 동편은 豆滿江을 挹婁와 의 경계로 하였고, 동쪽은 東海에 가깝다. 그리고 그 남쪽 어디가 濊貊과 접했는지는 그 북쪽 경계와 같이 『위서』와 『후한서』의 본문에는 분명하게 실려있지 않지만 毋丘儉의⁶¹⁾ 행군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경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지』가 고구려·예맥·옥저 등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기재한 것은 幽州刺史 관구검이 고구려왕 函을 토벌했을 때 답사하여 견문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행군에 관한 이 책의 기사는 예맥 및 옥저의 지

58) 원문에는 권94로 되어 있으나 『晉書』 四夷傳은 권97이 맞다.

59) 『晉書』 권97, 列傳67, 四夷.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60) 「廣開土王陵碑」, “二十年(永樂) 庚戌東夫餘舊鄒牟王屬民, 中叛不貢王躬率往諸(討)軍到餘城.”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에 근거해 ‘討’자 보입. 이후 금석문 내용 보정 및 방점 등은 모두 동일판에 근거함)

61) 원문에는 ‘毋丘儉’이라 되어 있으나, ‘毋丘儉’이라 교정하고, 관구검으로 읽음.

리를 자세히 살피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재료를 제공한다. 『위지』(권28) 관구검전을 살펴보면

正始 연간에 儉이 高句驪가 자주 침략하여 배반한다 하여 諸軍의 步騎(1만인을 독려하여 玄菟를 나와 여러 길을 따라 토벌하였다. 句驪王 宮이 步騎) 2만인을 이끌고 沸流水가에 진군하여 梁口에서 크게 싸웠는데 宮이 連破되어 달아났다. 儉이 드디어 험난한 길을 지나 (丸都에) 올라 (高)句驪의 도읍을 도록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천을 헤아렸다. …… 宮이 단기로 처자를 거느리고 도망치니 儉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6년에 다시 정벌하니 宮이 드디어 買溝로 달아났다. 儉이 玄菟태수 王頎를 보내 그를 추격하게 하고 沃沮를 지나 천여리를 가서 肅愼氏의 南界에 이르러 돌에 공격을 새겼는데, 丸都의 산에 새기고, 不耐의 성에 銘을 세웠다.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8천여口였고, 공을 논함에 상을 받아 제후가 된 자가 백여인이었다.⁶²⁾

라고 적혀 있고, 또 같은 책 동이전 동옥저조에

관구검이 句麗를 토벌하였다. 句麗王 宮이 沃沮로 달아나자 드디어 진군하여 그를 치니 沃沮의 邑落이 모두 깨어지고 참수하고 획득한 목과 포로가 3천여급이었다. 宮이 北沃沮로 달아났다. 北沃沮는 置溝婁라고도 하는데, 南沃沮에서 8백여리 떨어져 있고, …… 王頎를 따로 보내 宮을 토벌하게 하니 그 동쪽 경계의 끝까지 갔다.⁶³⁾

라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관구검전에 보이는 買溝는 동옥저전의 置溝婁

62) 『三國志』권28, 魏書28, 毋丘儉傳. “正始中 儉以高句驪數侵叛 督諸軍步騎(萬人出玄菟 從諸道討之 句驪王宮將步騎)二萬人 進軍沸流水上 大戰梁口 宮連破走 儉遂東馬縣車 以登(丸都) 屠(高)句驪所都 斬獲首虜以千數 …… 宮單將妻子逃竄 儉引軍還 六年 復征之 宮遂奔買溝 儉遣玄菟太守王頎追之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愼氏南界 刻石紀功 刊丸都之山 銘不耐之城 諸所誅納 八千餘口 論功受賞 侯者百餘人.” (‘萬人出玄菟 從諸道討之 句驪王宮將步騎’와 ‘丸都’ 보임. ‘高’는 관구검전 원문에 없는 글자)

6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毋)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斬獲首虜三千餘級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 王頎別遣追討宮 盡其東界.” (‘毋’를 ‘毋’로 교정함)

와 같은 이름으로 북옥저의 별칭이다.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 買溝는 買溝溝를 줄인 것으로 물가에 있는 성이란 뜻이고, 치구루의 置는 옮겨적을 때 생겨난 착오이다.⁶⁴⁾ 정말로 그렇다면 買溝溝는 원래 이 옥저 전부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그 수도의 이름이 된다. 그리고 이 도성이 지금의 어느 성인지는 물론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옥저 전체 영토의 길이가 천리인데 이 옥저의 수도가 남옥저의 수도를 지나 8백여리에 있다고 하면, 買溝溝가 옥저의 북부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 도성이 咸鏡道の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는 남옥저의 남쪽 경계가 정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추측될 수 있다.

『위지』에 따르면, 동옥저의 전체 길이는 천리이며 고구려왕 궁을 추격한 현도태수 王頌가 남옥저를 나와 천여리를 지나 옥저의 동쪽 경계의 끝에 이르러 肅愼氏의 남쪽 경계에 도달했다고 하므로, 왕기의 출발점이 옥저의 남쪽 경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 남옥저로 달아난 궁을 추격한 관구검이 어느 길을 따라 그곳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할 때,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함경도 남부로 나오려면 洞溝 근방에서 江界로 들어가 다시 방향을 동쪽으로 바꿔 牙得嶺을 넘어 中江 유역에 도달하고, 이 강 상류 지역에서 黃草嶺을 지나 咸興으로 나오는 것을 정해진 길의 순서라고 하므로, 관구검이 진군한 것도 또 궁이 이에 앞서 달아난 것도 모두 이 길을 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궁이 남옥저로 달아난 것이 옥저 및 예맥의 원조를 얻어 회복을 도모하기

64) [원주] 『三國史記』에 실린 高句麗의 지명에는 ‘아무개 買’라고 부르는 것이 많은데 이 경우 買는 모두 川 혹은 水의 뜻을 가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丙乙貫를 일명 沙川縣, 南貫를 일명 南川縣, 買忽을 일명 水城縣, 省知買를 일명 述川郡, 買伊縣을 일명 水入縣, 伊珍買를 일명 伊川縣, 買且忽을 일명 水谷城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조선어에서는 水 및 川을 mul이라고 말하므로, 買는 아마 이 말의 상대음일 것이다. 『魏志』 東沃沮傳에 따르면 「그 언어가 句麗와 크게는 같고 때때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므로 東沃沮傳의 置溝溝는 잘못이며 관구검전의 買溝(溝)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魏志』 高句麗傳에 따르면 이 나라 말에 城을 溝溝라 한다고 하므로 沃沮語로 買溝溝는 買城이란 뜻일 것이다. 『三國史記』에 보이는 高句麗의 지명에는 忽자로 끝나는 것이 많다. 이 忽은 朝鮮의 글자음에서 hol(xol)라고 발음하고 漢의 郡縣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되므로 『魏志』의 溝溝와 같은 토착어일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三國史記』에 보이는 高句麗의 買忽은 北沃沮의 買溝溝와 완전히 같은 이름일 것이고, 買忽을 일명 水城이라고 한 것은 토착어의 정확한 漢譯이라고 생각되므로, 沃沮語의 買溝溝도 또한 같은 뜻일 것이다.

위함이었음은 『위지』 동옥저조에

나라가 작아 큰 나라의 사이에서 압박받다가 드디어 句麗에 복속되었다. 句麗가 다시 그 중에 大人을 두어 使者로 삼아 서로 主領케 하였다. 또 大加로 하여금 租稅를 총괄하여 담당케 하여 貂·布·魚·鹽·海中食物을 천리밖에서 저 나르케 하고, 또 美女를 보내어 婢妾으로 삼게 하니, 그들을 奴僕처럼 대우하였다.⁶⁵⁾

라고 되어 있고, 또 濊조에 “漢末에 다시 句麗에 복속되었다.”⁶⁶⁾ “正始 6년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領東濊가 句麗에 복속하자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였는데, 不耐侯 등이 읍락을 들어 항복하였다.”⁶⁷⁾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옥저와 예맥 두 민족이 후한 말기부터 고구려에 예속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구검은 정시 6년 몸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부터 남하하여 옥저로 향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낙랑과 대방 2군의 태수에게 명하여 궁에게 복속된 領東의 예맥을 습격함으로써 남도와 북도로부터 고구려왕을 협공하려 하였다. 이 때 궁은 형세가 매우 비관적임을 알고 남옥저를 버리고 북옥저로 달아났을 것이다. 그래서 관구검이 황초령을 내려와 함흥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고구려왕이 북쪽으로 달아난 후였을 것이므로, 이곳에서 왕기에게 한 부대를 맡겨 궁을 추격하게 하고 자신은 남하하여 濊민족 토벌에 종사했을 것이다. 이 고찰에 잘못이 없다면 왕기의 출발지는 지금의 咸興府로서 옥저의 남쪽 경계는 이 주변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함흥부에서 동북 8백여 리에 위치하는 매구루는 아마 지금의 鏡城 또는 會寧이 아닐까.

故 那珂 박사는 동옥저가 지금의 함경도이고, 현도군이 설치된 옥저성은

65)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 (‘於’를 ‘于’로 ‘主’를 ‘使’로 ‘賦’를 ‘稅’로 교정)

66)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漢末更屬句麗.”

67)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지금의 함흥부라고 단언했다.⁶⁸⁾ 옥저성을 함흥부라고 고증한 것은 앞서 기술한 이유에 따라 옳다고 하더라도 동옥저를 함경도 전부에 비견한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종래 옥저가 함경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예맥의 거주지인 臨屯郡은 항상 강원도에 비견되었다. 그렇지만 이 고찰대로라면 옥저의 남쪽은 예맥과 조선이 되어야 하는데 『위지』는 예맥 한 나라만을 들고있고, 또 濊의 북쪽은 옥저여야 하는데 같은 책에 옥저 외에 고구려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생각해 보면 예맥의 거주지는 강원도에 한정되지 않고 함경도 남부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견해가 잘못되지 않은 것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왕기의 출발점이 지금의 함흥부이고 더욱이 이 주변이 옥저의 남쪽 경계가 되는 것으로써 증명될 수 있다. 또 이 때 관구검이 옥저성 즉 지금의 함흥부에서 남하하여 토벌한 민족이 예맥임은 『위지』(권4)⁶⁹⁾ 齊王芳紀에

正始 7년 봄 2월, 幽州刺史 관구검이 高句驪를 토벌하였다. 여름 5월, 濊 貊을 토벌하여 모두 깨뜨렸다. 韓那奚 등 수십 國이 각자 種落을 이끌고 항복하였다.⁷⁰⁾

라고 적혀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단 이 글은 관구검의 高句驪 정벌을 7년이라 했지만 『위지』 관구검전에는 6년이라고 적혀 있고 또 板石嶺에서 발견된 丸都의 비문⁷¹⁾에도

正始 3년에 高句驪를 …… 七牙門을 독려하여 句驪를 토벌하였다. 5(年) …… 다시 (고구려가)침략해 오자, 6년 5월 군대를 되돌렸다.⁷²⁾

68) [원주] 『사학잡지』 제5편 293쪽 참조.

69) 원문에는 권2로 되어 있으나 『魏志』 齊王芳紀는 권4가 맞다.

70) 『三國志』권4, 魏書4, 齊王芳紀. “七年(正始)春二月 幽州刺史母丘儉討高句驪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

71) [원주] 제2권 16쪽 참조.

72) 『魏 卍丘儉紀功碑』, “正始三年高句驪 …… 督七牙門討句驪五(年) …… 復(遣)寇六年五月旋.” (‘年’은 원저자가 편의상 보입한 것으로 비문 원문에는 없음. ‘遣’를 ‘遣’으로 교정)

라고 되어 있어, 관구검의 마지막 고구려 정벌이 6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本紀의 7년은 단정컨데 6년의 잘못이다. 그렇지만 비문에서는 관구검의 개선을 5월이라 하고, 본기는 예맥의 정복 완료를 이와 마찬가지로 5월의 일로 적은 것을 보면, 『위지』 본기는 다만 연도를 잘못 적었을 뿐이며 월에는 오류가 없는 것 같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관구검이 고구려왕 궁의 추격을 개시한 것은 정시 6년 2월이며, 5월에는 옥저와 예맥의 정복을 마치고 丸都城으로 되돌아 온 것이 된다. 이 전쟁에서 관구검이 정복한 濊민족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不耐라고 보이는데 관구검전에는 “不耐城이라 새겼다.”⁷³⁾라고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불내성이 『한서』의 不而와 같은 이름인 것은 확실하고, 또 그것이 濊민족인 것은 『위지』 동이전 濊조에

單單大山領 이서는 樂浪에 속하고, 領의 以東 七縣은 都尉가 주관하였는데, 모두 濊를 民으로 삼았다. 후일 都尉를 없애고 그곳의 渠帥를 봉하여 제후로 삼았다. 지금의 不耐濊는 모두 그 종족이다.⁷⁴⁾

라고 적힌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不耐濊의 거주지가 함흥 남쪽에 위치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위지』에 분명한 글이 없으므로 이를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지』 濊조에

正始 6년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領東濊가 句麗에 복속하자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였는데, 不耐侯 등이 읍락을 들어 항복하였다. 8년 대궐에 나아가 조공하니 조서를 내려 다시 不耐濊王의 벼슬을 주었다. (漢의) 郡民과 섞여 살면서⁷⁵⁾ 四時로 郡에 나아가 朝謁하였다. 2郡이 軍征이 있으면 賦調를 걷어 供給하고 使役시키는 것이 民을 대우하듯 하였다.⁷⁶⁾

73) 『三國志』권28, 魏書28, 毋丘儉傳. “銘不耐之城.”

74)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侯)皆其種.” (‘侯’는 濊條 원문에는 없는 글자)

75) “居處雜在民間”은 한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不耐濊王이)민간에 섞여 살면서”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원저자의 의도에 맞추어 번역하였다.

76)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

라고 적힌 글의 내용을 꼼꼼히 생각하면, 낙랑과 대방 2군의 태수가 영동의 불내예를 토벌한 것은 남옥저로 달아난 궁을 치기 위해 남진한 관구검의 본군과 만나려는 계획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때문에 이 濊民의 근거지와 남옥저와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 不耐濊王之 토착민이 魏의 군민과 섞여 사는 등의 상황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그것이 낙랑군의 치소인 지금의 평양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위지』 濊조를 살펴보면 “그 땅이 기름지다.”⁷⁷⁾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예맥 민족이 거주하는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永興·德源 주변의 평야를 가리킬 것이다. 이 주변은 대체로 토지가 기름지고 낙랑군 치소인 평양과 가장 가까운 곳이므로 불내예의 거주지는 아마 이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濊民이 영동에서 가장 강성한 것도 필경 이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동옥저조를 살펴보면 “그 토지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있다. 오곡이 잘 자랄 수 있으며, 밭농사 짓기에 좋다.”⁷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함흥 즉 옛 옥저성 부근의 평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으로부터 이북의 함경도는 대체로 토양이 척박하여 결코 비옥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옥저와 예맥의 경계선은 지금의 함흥과 영흥의 사이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東國輿地勝覽』(권48) 定平都護府, 古跡조에

옛 長城은 高麗 때에 쌓은 것이다. 서쪽으로는 大嶺을 넘고, 동쪽으로는 都連浦에 접한다. 해자를 세겹으로 둘러서 女眞을 막았는데 이곳이 곧 三關門의 땅이다.⁷⁹⁾

之 不耐侯等舉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77)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其地饒.”

78)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其土地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79) 『東國輿地勝覽』권48, 定平都護府, 古跡. “古長城高麗時所築, 西踰大嶺, 東接都連浦, 三周其隍, 以禦女眞此乃三關門之地.”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라고 적혀 있고, 또 『關北誌』 定平古蹟조에

옛 長城은 현(정평현)의 북쪽 鼻白山 위에 있는데, 高麗 때에 쌓은 것이
다. 서쪽으로는 大嶺을 넘고, 동쪽으로는 咸興과 宣德의 바닷가에 접한다.
세겜으로 해자를 둘러서 女眞을 막았는데 옛적에 부르기를 三關門이라 했
다.⁸⁰⁾

라고 되어 있으므로 定平 북쪽, 함흥 남쪽에 위치하는 鼻白山의 한 지맥이
남북을 분할하는 요해지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箭内 문학사의 고증에 따
르면 이 장성은 金の 曷懶路 및 東眞國과 고려와의 경계를 이룰 뿐만 아니
라, 元초에 元과 고려의 경계선이 된다고 하므로⁸¹⁾ 漢魏 시대에 옥저와 예
맥의 경계도 역시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증한 것에 다행히 잘못이 없다면 옥저 민족은 정평 이북의
함경도에 살았고 예맥 민족은 이곳 이남의 함경도 및 강원도의 대부분에 자
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漢초의 임둔군이 대체로 이 예맥 지방에 설치되고
현도군은 옥저 지방에 설치되었다고 해도 이 2군의 영역은 모두 낙랑군에
가까운 부분에 한정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도군은 정평 이북 端川 부
근에 이르는 즉 지금의 함경남도에 한정되었을 것이며 임둔군은 定平 이남
襄陽·江陵 부근에 이르기까지를 영토로 하고 그 이남은 실제로는 그 관할
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4. 樂浪郡

이상 眞番·玄菟·臨屯 3郡의 강역에 대해 서술한 바에 따라 樂浪郡 동

80) 『關北誌』, 定平古蹟. “古長城, 在縣(定平)北鼻白山上, 高麗時所築, 西踰大嶺, 東接咸興·宣德
海濱三周其隍, 以禦女眞, 古稱三關門.”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81) [원주] 제2권 22쪽 참조.

북 두 방향의 경계는 대략 추측할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서북의 경계와 遼東郡과의 접촉선이라고 하겠다. 武帝의 4군이 朝鮮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설치한 것이므로 낙랑군 서북의 경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면 옛 조선국의 이 방면 경계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史記』 朝鮮傳을 보면

朝鮮王 滿은 옛적 燕 사람이다. 처음 燕의 全盛期로부터 일찍이 眞番과 朝鮮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鄣塞를 쌓았다. 秦이 燕을 멸한 뒤에 遼東 外徼에 소속시켰는데, 漢이 일어나니, 멀어 지키기 어렵다고 하여, 다시 遼東의 故塞를 수리하고, 溟水를 경계로 하고, 燕에 복속시켰다. 燕王 盧縮이 배반하여 匈奴로 들어가니, 滿이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인을 모아 상투를 들고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도망하여 塞를 나왔다. 溟水を 건너 秦의 옛 空地인 上下鄣에 살았다. 점차 眞番과 朝鮮의 蠻夷 및 옛 燕·齊의 亡命者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王이 되었으며, 王險에 도읍하였다.⁸²⁾

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 글에 보이는 溟水는 분명히 지금의 鴨綠江일 것이기 때문에 漢초에 箕氏朝鮮과 漢의 遼東은 이 패수를 경계로 구분하고 있었다. 또 여기에 요동의 故塞라고 적혀있는 것은 패수 북쪽에 있는 鄣塞로 漢 이전 전성기의 燕이 쌓은 장성을 말한다. 燕의 망명자인 衛滿은 이 障塞를 나와 패수 즉 압록강을 건너 秦의 옛 空地에 자리 잡았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 空地가 패수의 남쪽 즉 지금의 조선 땅에 있었음은 매우 명료한 것이다. 또 여기에 보이는 “上下鄣”이라는 세 글자를 王先謙은 上下鄣이라고 새기고 있지만, 이것은 故 那珂 박사가 해석한 것처럼 鄣을 上下로라고 어순을 고쳐 읽어야 하는 것으로, 이 鄣이 그 空地 남쪽 방면에 위치하

82) 『史記』권115, 朝鮮列傳,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遼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溟水爲界 屬燕 燕王盧縮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魁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溟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고 조선과 접하는 경계 부근에 쌓은 鄣塞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漢書』(권28하) 地理志, 낙랑군조에 雲鄣이라고 불리는 鄣塞의 이름을 들고 있으므로 滿이 오르내린 鄣은 아마도 이 雲鄣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秦의 옛 空地가 패수와 이 운장 사이에 걸친 지역이라고 해야함은 명백하지만, 그러나 이 空地가 압록강 남쪽에서 어느 곳까지 연장되었는지 이 글만으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魏志』 東夷傳 韓조에 인용된 『魏略』의 글에 의거해서 이 空地의 면적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글을 뽑아 실겠다.

옛적 箕子의 후예인 朝鮮侯가, 周가 쇠약해지자 燕이 스스로를 높여 王이라 하고 東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朝鮮侯도 역시 스스로 王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燕을 逆擊하여 周室을 높이려 하였는데, 그의 大夫 禮가 諫하므로, 곧 중지하였다. 禮를 서쪽에 사신으로 보내 燕을 설득하니, 燕이 그것을 멈추고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에 子孫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燕이 이에 장수 秦開를 보내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천여리의 땅을 빼앗아, 滿潘汗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朝鮮이 드디어 弱해졌고 秦이 天下를 통일함에 미쳐, 蒙恬을 시켜서 長城을 쌓게 하여 遼東에 이르렀다. 이 때에 朝鮮王 咨가 王이 되었는데, 秦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秦나라에 略屬하였으나, 朝會를 수공하지는 않았다. 咨가 죽고, 그 아들 準이 즉위하여 20여년에 陳·項이 起兵하여, 天下가 어지러워지니, 燕·齊·趙의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생스러워 점점 準에게 도망갔으므로, 準은 이들을 서쪽 방면에 두었다. 漢 때에 이르러 盧縮을 燕王으로 삼으니, 朝鮮과 燕은 溟水(溟水の 잘못)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 縮이 배반하고 匈奴로 도망가기에 미쳐, 燕 사람 衛滿이 亡命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東쪽으로 溟水を 건너, 準에게 나아가 항복하였다. 準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거주하게 해주면 中國의 亡命者를 朝鮮의 藩屏이 되게하겠다고 요청하였다. 準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벼슬을 주어 博士로 삼고, 圭를 下賜하고, 百里的 땅을 封해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滿이 도망한 무리들을 꺾어,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이에 거짓으로 사람을 보내 準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漢兵이 열 갈래로 이르니, 들어가 宿衛하기를 청합니다.” 드디어 되돌아서서 準을 공격하였다. 準은 滿과 싸웠으나 대적하지 못하였다.⁸³⁾

『위략』의 이 글은 앞에서 들은 『사기』의 글과 더불어 요동과 조선의 경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적당한 사료를 제공한다. 이 글에 따르면 위만이 패수를 건너 조선의 서쪽 경계에 머무르려고 하니 箕準이 이로 인해 그를 서쪽 변경 100리의 땅에 봉하여 조선의 藩屏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생각컨대 이 100리의 땅은 『사기』의 이른바 秦의 옛空地에 해당할 것이다. 당시의 100리는 거의 오늘날의 7,8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만이 자리잡은 서쪽 변경 100리의 지역은 압록강 남쪽 7,8리의 땅으로, 저 운장은 이 지역의 남쪽 변경에 길게 이어져 있는 산맥을 따라서 쌓아진 것이다. 『大東輿地圖』를 살펴보면 平安·咸境 2道の 분계령은 浪林嶺에 이르러 서쪽으로 한 지류의 산맥을 갈림길로 하여 楚山의 남쪽 경계로부터 압록강과 나란히 가서 서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 鐵山 동쪽에 도달해서 바다로 빠져 들어간다. 또 이 나뉜 산맥은 摩天 북쪽에서 북쪽으로 작은 지류의 산맥으로 나누어지고 朔州의 서쪽 靑水에 이르러 압록강에 육박한다. 생각컨대 낙랑군의 운장은 이 靑水·마천·철산을 연결하는 산맥을 따라 축조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위만이 봉해진 100리의 땅, 즉 『사기』의 이른바 秦의 옛空地는 이 산맥과 압록강에 의해 에워싸인 지역으로 지금의 龍川 및 義州 지방에 해당시킬 수 있다.

秦漢 시대의 조선과 요동의 경계는 앞에서의 고증에 따라 약간 추측할 수 있지만, 戰國 시대의 燕과 조선의 경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앞에 인용한 『위략』의 기사에 따르면 燕이 戰國말에 秦開에게 조선의 땅을 공략해서 취하게 한 것이 2천여 리이며 滿潘汗에 이르러 경계를 이루었으므로 조선

8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溟水(溟水誤: 원저자注) 及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溟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中國亡命爲朝鮮 藩屏 準信龍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以’를 ‘燕’으로 ‘溟’의 경우는 원저자가 ‘溟’의 오기임을 확인)

은 이로부터 쇠약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을 경솔하게 읽은 사람은 이 때 燕이 단지 조선이 요동에 영유한 땅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 반도 깊숙이 침입해서 그 영토를 많이 빼앗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한 발 물러서서 이 2천여 리를 실제로 맞추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2천여리라는 거리는 어디서부터를 기준으로 셈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령 이것이 遼陽으로부터 헤아린 것이라면 이곳으로부터 수도성에 이르는 것이 아직 천이삼백 리를 넘지 않고, 또한 山海關으로부터 헤아린 것이라면 이곳으로부터 수도성에 이르는 것이 역시 2천리를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2천여 리라는 숫자에 의해 燕과 조선의 경계인 滿潘汗의 위치를 추측하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러면 이 두 나라의 경계를 나누는 선인 滿潘汗의 위치를 찾아낼 수단은 끝내 없는가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漢書』(권28 하) 지리지를 살펴보면 요동군의 속현으로 潘汗縣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滿潘汗의 머리 글자 ‘滿’을 생략한 것으로 이렇듯 강에 의해 그 이름을 얻는 것은 마치 같은 군의 無慮縣이 醫巫慮山의 머리 글자 ‘醫’를 생략한 명칭과 같다.

그리고 潘汗縣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注에

沛水是 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應邵가 말했다. “汗水是 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潘의 음은 盤이다. 師古에 沛의 음은 普인데 아마도 反音이다. 汗의 음은 寒이다”⁸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塞外라고 적혀있는 것이 요동의 塞外여야함은 논할 것도 없으므로, 이 塞外로부터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는 요동군 안의 강은 압록강 외에 결코 이것을 달리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

84) 『漢書』권28下, 地理志 下. “沛水出塞外 西南入海 應邵曰 汗水出塞外 西南入海 潘音盤 師古(曰) 沛音普蓋反 汗音寒.” (‘曰’을 보임)

과연 그렇다면 滿潘汗은 압록강의 옛 이름이며 潘汗縣은 이 강에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그 이름을 얻은 것이다. 또 沛水도 汗水도 모두 滿潘汗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汗水란 이름은 滿潘汗의 생략인 潘汗을 거듭 생략한 것일 것이므로 실제로는 滿潘汗의 약칭에 지나지 않는다. 沛水는 涿水와 같은 음이므로 이것을 같은 말의 다른 번역일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汗과 沛가 글자 모습이 비슷하여 혼동되기 쉬운 것과 潘汗縣 아래에 붙여진 沛水 및 汗水의 注에서 전부 동일한 것이라 한 것을 생각하면, 沛水는 아마 汗水를 잘못 베낀 것일 수 있다. 『위략』의 같은 글 안에서 하나의 압록강을 가리키는데 滿潘汗과 涿水라는 두 이름을 들었다고 하면 그 이상함을 의심할 것 없다고 보증하기 어렵지만, 『위략』의 이 글이 두 개의 다른 사료를 사용하여 편찬했다고 할 때 그 의심의 응어리는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것이 유독 이 강에 한정해야 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압록강은 涿水 또는 滿潘汗이라고 불렸던 것 외에 또 馬訾水라고도 불리곤 했다. 그 증거는 『한서』(권28하) 지리지 현도군 西蓋馬縣의 注에

馬訾水是 서북쪽으로 鹽難水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西安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지나는 군이 둘에, 2천1백리를 간다.⁸⁵⁾

라고 적혀있는 것이 이것이다. 현도군의 서개마현이 옥저와 고구려의 경계가 되는 蓋馬大山에서 그 이름을 얻은 것이 분명함과 함께 西安平이 九連城의 옛 이름이 됨은 의심할 것이 없으므로, 馬訾水가 압록강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한서』에 이미 이 강을 패수라고 말하는데 또 이것을 馬訾水라고 부르는 것은 기괴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패수도 馬訾水도 모두 토착어를 음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漢人이 전해 들었을

85) 『漢書』 권28下, 地理志 下.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行’을 보입)

때에 번역한 이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이상하다고 할 것이 없다. 또한 같은 하천이 상류와 하류에서 그 부르는 이름을 달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므로 어찌면 패수는 압록강 하류의 이름이고 馬訾水는 그 상류를 부르는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패수와 馬訾水가 漢 시대 압록강의 이름이었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상에서 고증한 바에 따라 滿潘汗이 溟水·馬訾水 등과 함께 압록강의 옛 이름이므로, 전성기의 燕은 실로 이 강을 경계로 箕氏 조선과 영토를 접하고 있던 것이다.

이상은 『사기』 조선전에 보이는 패수 및 『위략』의 滿潘汗을 압록강이라고 단정하고 입론한 것이지만, 이 가정이 잘못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다른 기사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隋唐 시대에 이르러 패수는 오로지 大同江을 가리키기 때문에⁸⁶⁾ 어떤 논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漢 시대의 패수도 이것과 같이 대동강을 말하는 것이며, 압록강이 아닌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고찰이 잘못된 것은 『사기』와 『한서』의 조선전을 꼼꼼히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지만, 덧붙여 근본적으로 이 견해가 오류인 것을 알게 하려면 역사상의 대세로부터 漢과 韓 두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조선이 보잘 것 없는 작은 반도로서 오래도록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그 이웃한 대국인 支那의 병탄을 면했던 것은 동양사상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지나가 항상 長城 및 요동·요서의 塞外에 강하고 용맹한 戎狄를 적국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漢 민족이 조선에 군사를 보내서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이 塞外의 蠻族을 격퇴해서 미리 후방의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漢 武帝가 匈奴를 漠北에서 격퇴한 뒤에 비로소 衛氏조선국을 멸망시켰고, 隋 煬帝, 唐 太宗이 突厥을 복종시킨 뒤에 비로소 고구려를 정벌했으며, 또 같은 사정 아래 唐 高宗이 百濟·고구려 두 나라를 정벌해서 이를 병탄한 것과 같은 것이, 모두 그 실례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를 요약하면 조선 반도에

86) [원주] 津田氏の「溟水考」『東洋學報』제2권 218-22쪽 참조.

서 일어난 국가는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커다란 세력의 동쪽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방의 큰 세력인 지나가 조선을 토벌할 수 있는 때는 반드시 다만 中國을 통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반드시 장성 이북의 강한 적을 격퇴하거나 혹은 복속시킨 뒤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추세에서 이를 추측하면 戰國 시대 燕은 直隸省 및 요동에 자리잡은 작은 나라이고 안으로는 세 방향의 강국을 막고, 밖으로는 흉노·東胡·예맥의 침략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형세 아래에서는 아무리 燕이 동방에 도지를 개척하려 해도 압록강을 넘어 깊숙이 조선 반도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도저히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바였다. 秦 始皇帝는 6국을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해서 그 위력이 燕에 비할 바 아니었지만 균웅할거의 여파는 하루아침에 뽑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 秦 왕실에 일이 생긴다면 사망의 원망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일어나 이반하려고 하는 형편이었다. 또한 황제가 북쪽 변방에 만리장성을 쌓고 흉노를 막북으로 격퇴시켰다 하더라도, 변경의 경비가 허술해져서인지, 北狄은 바로 남하하여 塞內를 노리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동·요서의 가장자리에는 동호·예맥이 길게 자리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동쪽 방면에서 秦의 세력을 중도에서 끊으려고 하는 형세였다. 이와 같은 안팎의 사정으로는 아무리 시황제가 조선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겨우 압록강 남쪽에서 지금의 義州·龍川 등의 땅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황제가 죽고 천하가 다시 크게 혼란하게 되었으므로 秦人의 요동 경영도 따라서 폐지되고 압록강 남쪽의 땅은 자연히 포기되기에 이르렀던 것처럼, 漢초 燕의 망명자 위만이 동쪽 방면으로 달아났을 때 이곳은 완전한 空地로 되어있었다. 그렇다면 어찌서 조선은 中國의 쇠퇴를 틈타 이곳을 쳐서 복속시키지 않았을까. 의주·용천의 땅은 결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기름지지 않은 황무지가 아니다. 그러나 조선이 이를 방관하고 점령하지 않은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지역은 漢·貉·조선 세 민족의 충돌점이고 게다가 그 분쟁지이다. 따라서 이 삼국 중 누군가가 가장 강성하여 다른 두

나라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졌을 때에는 이를 잘 영유할 수 있었지만, 만약 삼국의 세력이 차등이 없다면 이 지역은 자연히 무소속의 間空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전에 秦은 시황제 재위시에는 압록강 유역에 자리잡은 예맥 및 조선 반도의 서북부에 자리잡은 조선국을 위압할 수 있었으므로 지금의 용천·의주 동남쪽 변방에 鄣塞를 쌓아 이를 점령했지만, 황제가 죽고 그 방비가 풀여지자마자 이 사이는 완전히 무소속의 황량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를 후세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唐 시대에 완전히 이와 같은 상태가 다시 압록강 남쪽의 땅에서 출현한다. 처음 唐은 新羅와 연합하여 백제·고구려의 두 나라를 병합하자마자 지금의 평양에 安東都護府를 두어 이를 진무했지만, 武韋의 亂으로 唐 왕실의 위력이 안팎으로 실추되었으므로 신라는 여기서 기회를 얻어 唐이 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영토를 침략하여 마침내 대동강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에 大氏의 靺鞨이 吉林省에서 쫓겨하여 그 세력이 압록강 유역의 대부분에 미쳤으므로, 唐은 겨우 그 강의 입구를 장악해서 신라로 통하는 길을 막는데 지나지 않았다. 이 때 압록강과 대동강의 사이는 唐·신라·渤海 세 나라의 분쟁지가 되었고 唐이 다만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땅이 실제로는 무소속의 間空地가 된 것은 마치 秦말 漢초의 압록강 남쪽 백리 땅과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唐 시대의 間空地가 넓고 큰 것은 신라의 수도가 동방 慶州의 땅에 치우쳐 있던 것과 唐이 처음 조선에서 소유한 영토가 넓고 컸던 것에 기인하고, 秦말 漢초의 空地가 협소한 것은 위씨조선의 수도가 지금의 평양에 있었던 것과 秦의 이 방면에서의 세력이 唐처럼 강대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낙랑군의 사방 경계에서 가장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 남쪽 경계이지만 이를 당시의 대체적인 형세에 비추어보면 漢江 유역은 이 군 안에 포함된 것 같다. 한강은 당시 어떠한 이름으로 알려졌을까.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지시할 수는 없지만 『한서』(권28하) 地理志에 실린 낙랑군의 속현 舍資의 注에 “帶水는 서쪽으로 帶方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⁸⁷⁾라고 적힌 글 안에

보이는 대수는 아마 지금의 한강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지』(권30)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王莽의 地皇 연간에 辰韓의 酋長으로 廉斯鑣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樂浪에 항복하려고 해서 그 나라를 나와 舍資에 이르러 그 사정을 郡의 관리에게 전했다고 쓰여 있으므로, 이 縣은 진한의 변방 경계에 접근한 낙랑군의 속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진한은 지금의 경상도 동북 양면에 자리한 민족이므로, 이 나라에서 낙랑에 이르러 한다면 그 동북경에서 鳥嶺 또는 竹嶺을 넘어 忠州로 나오는 것을 정해진 길의 순서라고 한다. 그리고 한강의 상류는 이 주변을 통과하므로, 舍資縣은 아마도 지금의 충주일 것이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큰 강은 한강 뿐이므로, 今西 문학사가 대수를 지금의 한강일 것이라고 고찰한 것은 아마도 정확할 것이다.⁸⁸⁾ 帶方縣이 대수에서 그 이름을 얻은 것이 분명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단은 없지만 이 강의 유역에서 漢人이 자리잡을 수 있는 천연의 요충지는 지금의 京城일 것이므로 대방현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한데 이상의 이유에 따라 대수 즉 지금의 한강 유역이 낙랑군에 속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남의 지역도 또한 이 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만한 기록이 없다. 이 때문에 자연히 이 군의 남방에 있는 韓 민족의 강역과 세력을 고찰해서 간접적으로 그 남쪽 경계를 추정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조선 반도의 남부에 자리한 韓 민족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히 전하는 것은 『위지』 동이전이다. 지금 前漢 시대의 일을 논증하기 위해 魏 시대의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양 시기에 걸쳐서 반도의 형세와 상태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위지』(권30)에 인용된 『위략』에 前漢 말기 이미 진한·弁韓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여 『위지』가 말하는 바와 꼭 맞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므로, 前漢 시대 韓國의 사정을 『위지』의 글에 의거해 이를 추론하는 것도 결코 무모한

87) 『漢書』권28下, 地理志 下. “帶水西至帶方入海.”

88) [원주] 『百濟國都漢山考』 『史學雜誌』第23篇, 68쪽 참조.

일은 아닐 것이다. 『위지』 동이전 한조를 살펴보면 “韓은 帶方의 남쪽에 있고, 동서로 바다를 한계로 한다. 남쪽으로는 倭와 접하였다. 사방 4천리이다.”⁸⁹⁾라고 적혀있으므로 韓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강역이 결코 협소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韓國은 馬韓·진한·변한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마한은 54國으로 大國은 만여가, 小國은 수천기여서 통틀어 10여만호를 헤아릴 수 있다. 또한 진한과 변한은 합하여 24國을 포함하고 大國은 4,5천가, 소국은 6·7백가로 통틀어 4,5만호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나라를 합치면 거의 마한 한 나라에 해당하는 국력이 된다. 이들 國들에는 臣智라고 부르는 渠帥가 있었고, 각 部曲을 통솔하는 상호 관계는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지』의 글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으면 이 세 나라가 모두 馬韓王 아래 통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마한국이 한 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된 것은 “辰王이 月支國을 다스린다.”⁹⁰⁾라고 적혀있는 글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지만, 진한국도 또한 마한왕의 제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지』 진한조에 “그 12國이 辰王에 속한다. 辰王은 항상 馬韓인이 되는데, 대대로 서로 계승한다. 辰王은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다.”⁹¹⁾라고 적혀 있고, 또 아래에는 “辰韓 …… 옛적의 망명인으로 秦役을 피해서 韓國에 왔다. 馬韓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 주었다.”⁹²⁾라고 적혀 있으며, 또 여기에 인용된 『위략』에 “그 流移한 사람들이므로 馬韓에게 통제를 받은 것이 명백하다.”⁹³⁾라고 기록되었다. 辰韓을 秦人의 후예라고 한 것은 秦과 辰 두 글자의 음이 서로 가까운 것에 착안해 부회된 것으로, 마치 倭人을 吳의 太伯의 자손이라고 하고 匈奴를 夏侯氏의 苗裔가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지나인의 가탁이다. 그렇다면 이 주장이 두말할 것 없는 역사상의 사실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진한이 외롭고 힘이 약해서 항상 마한의 제어를 받은

89)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90)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辰王治月支國.”

91)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92)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辰韓 …… 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9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것은 확실하다.

辰國이라는 이름이 三韓 전부의 명칭인지 혹은 그 일부분의 칭호인지 『위지』 동이전이 말하는 바로는 그 구별이 매우 명료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그 韓조에 “(韓은……) 세 종족이 있는데, 첫째는 馬韓, 둘째는 辰韓, 셋째는 弁韓이다. 辰韓은 옛적의 辰國이다.”⁹⁴⁾라고 적혀 있는 것에 따르면 진국은 삼한의 하나인 진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한조를 보면 “辰王이 月支國을 다스린다.”⁹⁵⁾라고 적혀 있고, 게다가 월지국은 마한 54國 중에 보이는 하나의 國이므로 마한은 진국의 일부이고 진국은 삼한 전토의 총칭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또 진한조에서 진한·변한의 24國을 일괄하여 이를 나열해 기록하고, 변한에 속하는 12國에는 하나 하나 弁辰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이를 진한의 12國과 구별하는 것을 보면 변한도 또한 진국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진한조를 살펴보면

“弁韓과 辰韓을 합쳐 (또한) 24國이다. …… 그 12國이 辰王에 속한다. 辰王은 항상 馬韓인이 되는데, 대대로 서로 계승한다. 辰王은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다.”⁹⁶⁾

라고 적혀 있는데, 이 진왕은 전적으로 진한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마한조에서 말하는 진왕인 마한왕을 가리킨 것과 같지 않다. 이와 같이 『위지』 동이전에는 진왕의 명칭에 모순되는 곳이 있으므로 독자는 반드시 어느 韓國이 과연 진국이 되는가를 판정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진한조에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있다. 그곳의 노인이 전해 말하기를 옛적의 망명인으로 秦役을 피해서 韓國에 왔다. 馬韓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 주었

94)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韓 ……)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古之辰國也.” (원문에는 ‘韓’과 ‘有’의 사이에 韓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있음)

95)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辰王治月支國.”

96)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弁辰韓合(亦)二十四國 ……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亦’은 진한조 원문에 없는 글자)

다. 성책이 있다. 그 언어는 馬韓과 같지 않아서, ‘國’을 ‘邦’이라 하고, ‘弓’을 ‘弧’라고 하고, ‘賊’을 ‘寇’라고 하고, ‘行酒’를 ‘行觴’이라 하고, 서로를 불러 ‘徒’라고 하니, 秦人과 비슷하다. 단 燕과 齊의 물건을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樂浪人을 불러 ‘阿殘’이라하는 데 東方人이 ‘我’를 ‘阿’라 하니, 樂浪人을 본디 그 남은 사람이라 여긴 것이다. 지금 秦韓이라 부르기도 한다. 처음에 6國이었는데, 점차 나뉘어 12國이 되었다.⁹⁷⁾

라고 적혀 있어 당시 魏人이 辰韓을 또한 秦韓이라고도 부르고 이 秦韓은 秦人이 이주한 것이라고 부회시킨 것을 가지고 이를 살펴보면 魏人이 말하는 辰國은 바로 辰韓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지』의 글을 자세히 살펴 연구하면 진국은 진한전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진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마한전에 진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韓王 또는 馬韓王의 오류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데 반해서, 『후한서』에 이르러서는 명료하게 진국을 삼한 전체의 이름이라고 해서 마한왕을 진왕으로 삼는다. 그 증거는 같은 책(권8)⁹⁸⁾ 동이전(韓國)조에⁹⁹⁾

韓은 세 종족이 있는데, 첫째는 馬韓, 둘째는 辰韓, (셋째는 弁辰이라 한다.) 馬韓은 서쪽에 있는데 54國이 있으며 그 북쪽은 樂浪, 남쪽은 倭와接하여 있다. 辰韓은 동쪽에 있는데 12國이 있으며 그 북쪽은 濊貊과接하여 있다. 弁辰은 辰韓의 남쪽에 있는데 또한 12國이 있으며 그 남쪽은 倭와接해 있다. 모두 78國이다. 伯濟는 그 중의 한 國이다. 大國은 만여戶, 小國은 수천家인데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고 땅을 합쳐 사방 4천여리이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한계로 한다. 모두 옛 辰國이다. 마한이 가장 커서 그 종족을 함께 왕으로 세워 진왕으로 삼아 日支國에 도읍하여 전체 삼한 지역의

97)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弧’를 ‘弧’로 교정함)

98) 원문에는 권84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東夷列傳은 권85가 맞음.

99) ‘轉國’을 ‘韓國’으로 교정함.

왕이 되게 한다.¹⁰⁰⁾

라고 적혀 있고, 또 그 아래의 글에

옛적에 朝鮮王 準이 衛滿에게 격파되어 이에 그 남은 무리 수천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해 들어가서 馬韓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스스로 韓王이 되었다. 準의 後孫이 滅絶되자 馬韓人이 다시 自立하여 辰王이 되었다.¹⁰¹⁾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한서』는 진국을 삼한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하고, 『위지』는 진한을 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것을 아니라고 하고 어느 것을 옳다고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 기재된 내용의 시대로 말하자면 『후한서』가 『위지』의 앞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후한서』의 편찬자는 宋의 范曄이고 『위지』의 작성자는 晉의 陳壽이므로, 편찬이 앞서는 것으로 말하자면 『위지』가 완성된 것은 『후한서』보다 앞선다. 게다가 『후한서』 동이전은 대체로 『위지』의 글을 표절해서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특히 韓傳이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범엽이 『위지』에 의거해 韓國의 일을 기록하려고 함에 즈음해서 이 책이 진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은 진한왕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것은 마한왕을 가리켜서, 그 나타내는 것이 무척이나 애매하여 고생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편찬자는 진국의 이름을 삼한 전토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모순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고통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후한서』의 글을 전거로 하여 우리가 『위지』의 비판에 의거해 얻은 결론이 좌우될 수는 없다.

100) 『後漢書』권85, 東夷列傳.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間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三曰弁辰’을 보입함)

101) 『後漢書』권85, 東夷列傳. “初 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漢書』朝鮮傳에 “眞番辰國 云云”¹⁰²⁾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위지』韓傳에 “辰韓은 옛적의 辰國이다.”¹⁰³⁾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한서』 또는 그 외의 옛 서적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前漢 시대의 진국은 과연 어느 國을 가리킨 것일까. 이미 앞서서도 말한 것과 같이 『위지』에 인용된 『위략』에는 왕망의 지황 연간에 진한의 渠帥 廉斯鑿이 낙랑에 나아가서 항복한 것을 기록하고, 또 같은 글에 변한에서 布 만오천필을 같은 군에 바친 것을 기록했으므로 前漢 때에 이미 韓國은 진한·변한·마한의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정말로 그렇다면 『한서』의 진국은 『위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진한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또 다시 이를 생각해 보면 『한서』의 조선전은 전적으로 『사기』의 글을 옮겨 실은 것인데, 유독 『사기』에 “眞番 주변의 衆國”¹⁰⁴⁾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을 고쳐 “眞番辰國”¹⁰⁵⁾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생각건대 班固는 『사기』에 “주변의 衆國”¹⁰⁶⁾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한층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즉 낙랑군 근방에 있다고 알려진 진국의 이름을 제멋대로 여기에 옮긴 것은 아닐까.¹⁰⁷⁾ 『사기』의 이른바 眞番 주변의 衆國이라는 것은 예맥·현도·임둔 등과 같이 漢土에 접근한 민족을 가리킨 것이 될 것인데, 만약 『한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이 衆國의 하나가 진국이라고 한다면 경상도의 동부에 치우쳐 있는 진한이 조선국을 횡단해서 멀리 漢의 天子에게 조공을 했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이것을 후세의 역사에서 증명하고 또 이것을 실제에 맞추어 생각할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논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한서』가 眞番辰國이라고 병기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진번국도 또한 조선 반도 남부의 진국 근방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들 논자는 필경 『한서』와 『사기』의 글을 통독해서 그 글이 전하는 바

102) 『漢書』권95, 朝鮮傳. “眞番辰國.”

10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辰韓者故之辰國也.”

104) 『史記』권115, 朝鮮列傳. “辰番旁衆國.”

105) 『漢書』권95, 朝鮮傳. “眞番辰國.”

106) 『史記』권115, 朝鮮列傳. “旁衆國.”

107) [원주] 앞의 眞番郡 부분 『史記』의 글을 인용한 것을 참고할 것.

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진한이 마한에
 예속된 일은 『위지』의 글에 의거해 명백하지만,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한 변한 혹은 변진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 『위지』를 대충 읽어
 서는 성급하게 단언하기 어렵다. 같은 책 변진조에 “12國에 또한 王이 있
 다”¹⁰⁸⁾라고 적혀 있으므로 변한의 12國에도 또한 왕이 있었음은 분명하지
 만, 이 왕은 진한에서와 같이 마한인을 받들어 자국의 왕이라고 했는지 그
 령지 않으면 자국에는 독립된 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완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에 속한다. 『후한서』(권85) 동이전에

馬韓이 가장 커서 그 종족을 함께 王으로 세워 辰王으로 삼아 目支國에
 도읍하여 전체 三韓 지역의 王이 되게 한다. 여러 國의 王의 (선대는) 모두
 馬韓 종족의 사람이다.¹⁰⁹⁾

라고 적혀 있는 것에 따르면 변진의 왕도 또한 마한인이 되는 것 같이 생각
 될 터이지만, 『후한서』의 편찬자는 이미 삼한 전부를 진국이라고 오해했으
 므로 이 대목에서 말하는 것도 또한 억측에 의한 판단이라는 혐의가 있어
 바로 이 글을 전거로 해서 변진의 왕도 또한 마한인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지』 마한조에
 “辰王(즉 馬韓王)이 月支國을 다스린다. 臣智는 呼 優呼臣雲遣支報安邪跖支
 漬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의 칭호를 더한다.”¹¹⁰⁾라고 적혀 있는 글을 고찰하
 여 변한도 또한 진한과 같이 마한이 제어하는 곳일 것이라 추측한다. 이 글
 은 예로부터 난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직 이것의 해석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優呼 이하 秦支廉에 이르는 글이 臣智
 즉 마한의 大渠帥가 지니는 칭호가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우리는 이것을

108)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十二國亦有王.”

109) 『後漢書』권85, 東夷列傳.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 皆是馬韓種人焉.” (‘先’을 보임)

110)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跖支漬臣離兒 不例拘邪秦支廉之號.”

優呼臣雲의 遣支報, 安邪의 蹶支漬, 臣離의 兒不例, 拘邪의 秦支廉이라고 읽어서 優呼臣雲·安邪·臣離·拘邪를 지명이라 하고 遣支報·蹶支漬·兒不例·秦支廉을 직명 혹은 칭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지명 중에 소속이 명백한 것은 安邪 및 拘邪이다. 『위지』 진한·변진조를 살펴보면 안야·구야 두 國은 변진 12國 중에 속하고, 또 같은 책 倭人조를 보면 구야국은 대방군에서 倭國에 이를 때 선박이 정박하는 韓國 남쪽 연안의 요진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故 那珂 박사는 이것을 國史의 加羅, 漢史의 加倭로서 지금의 김해라고 하고 또 안야는 國史의 安羅, 漢史의 阿尸良으로서 지금의 함안이라고 단정했다.¹¹¹⁾ 가라와 안라 두 國이 任那 10國에 속하고, 日本府의 소재지가 되는 것을 보아도 모두 南韓에서의 중요한 지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한의 大渠帥가 이 두 國의 이름을 붙인 칭호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 변진 12國도 역시 마한에 예속되었을 것이다.

조선 반도의 남부가 漢魏 시대를 통하여 세 나라로 분열되고, 더구나 이 세 나라가 느슨하게 연결된 형식을 따라 마한에 통합되는 것은 상술한 고증에 따라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진한·변한 두 나라의 강역을 지금의 경상도에 해당시키는 것이 적절함은 이미 津田씨의 고증¹¹²⁾이 있어서 거듭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유독 마한의 경계에 이르러서는 아직 명료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데 진한·변한 두 나라가 합하여 24國, 4·5만호를 갖고 있음에 대해 마한은 한 나라가 54國, 10여만호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 마한국이 적어도 전라도 전부 및 충주를 제외한 충청도를 영유했음을 미루어 알기는 어렵지 않다. 당시 진한의 북쪽 강원도에는 예맥이 있고, 마한의 북쪽에는 낙랑군에 자리잡은 漢人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남하하여 韓族을 눌러 복종시킬 수 없는 형세였다. 이 중에 가장 강성한 漢의 대표자인 낙랑군이 삼한을 복속시킬 수 없었던 것은, 그 동북 두 방향 일대에 예맥 민족이

111) [원주]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第7編 202쪽 및 388쪽 참조.

112) [원주] 津田씨의 朝鮮에 관한 연구는 우리 歷史調查部 제2회의 보고로서 가까운 시일에 공표할 예정이다.

존재해서 이와 대항하는 형세를 이룬 것과 그 남방에 삼한을 통합시킨 마한이 할거한 것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세로써 생각해 보면 대수 즉 지금의 한강 유역은 실로 漢·貊·韓 세 민족의 충돌점이며 게다가 그 분쟁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漢의 국운이 강성할 때는 그 힘이 능히 韓·貊 두 종족을 격퇴해서 이 유역을 점령할 수 있었겠지만, 漢의 위력이 쇠퇴하면 곧 이 지역이 금세 韓과 貊에게 침략을 받아 이를 방어할 수 없기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형세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상태가 後漢 말기 中國에 내란이 일어나 변경의 경계가 廢頹하기에 이르자 나타났다. 『위지』 동이전 韓조에

桓帝와 靈帝의 말기에 韓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어하지 못하니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흘러들어갔다. 建安 중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荒地를 帶方郡으로 삼고 公孫模과 張敞 등을 보내어 遺民을 거두어 모으게 하고 병사를 일으켜 韓과 濊를 정벌하게 하니, 옛 백성들이 점차 나왔다. 이 후로 倭와 韓이 드디어 帶方に 속하였다.¹¹³⁾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後漢의 낙랑군은 桓帝와 靈帝 두 황제 때의 내란으로 세력이 실추되어 韓·濊 두 민족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수 유역을 완전히 방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의 글 중에 荒地라고 한 것은 대수 유역이 무소속의 間空地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지역이 원래 토양이 거칠고 기름지지 못해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황무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때 韓 혹은 濊가 이 유역을 점령하지 않은 것은 그 세력이 다른 두 나라를 압도하여 이를 확고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마치 압록강 남쪽 백리의 땅이 예맥·조선·지나의 분쟁 지역이 된 것에 의해 秦의 세력이 쇠퇴하기에 미쳐 일시적으로

11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間空地가 되어버린 것과 같다. 그런데 公孫度이 요동에 웅거하자 동방 경략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의 아들 康 때에 이르러 다시금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 여기에 대방군을 설치한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秦 말 漢초에 漢人의 세력은 압록강에 미쳤고 그 동쪽에 예맥, 남쪽에 조선이 있었으므로 압록강 남쪽 의주·용천 등의 지역은 空地였지만, 後漢 말기에는 漢人의 세력이 황해도 북부에 도달하여 그 동쪽에 예맥, 남쪽에 韓國이 있었으므로 한강 유역이 일시적으로 荒地가 되었던 것이다. 漢魏 시대에 대수 즉 지금의 한강 유역이 이와 같은 형세 아래에 있었다고 하면 낙랑군의 영토가 이 유역보다 남방에 미쳤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5. 지명의 해석

윗 글에서 논증한 바에 따라 樂浪郡의 강역을 생각하면 동쪽은 大關嶺 산맥으로서 玄菟·臨屯 2군을 경계로 하고, 북쪽은 이 산맥의 狼林嶺으로부터 나뉘어 갈라지는 서쪽 지맥으로서 眞番郡과 접하며, 서북쪽은 朔州 이남의 鴨綠江으로서 遼東郡에 이어지고, 남쪽은 漢江 유역 남변에서 馬韓과 접하고, 서쪽일대는 큰 바다에 가깝다. 이것을 오늘날의 지도로 생각해 볼 때, 경기도의 과반, 황해도의 전부, 강원도의 일부분 및 평안도의 과반이 그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큰 잘못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어느 곳에 수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은 朝鮮 개국 당시의 큰 문제로서 창업자가 크게 고심초사한 바일 것이다. 종래 낙랑군의 치소이자 조선의 국도인 王險城을 지금의 평양에 비정했다. 이것을 상술한 형세에 비추어보면 이 고증은 아마 정확할 것이다. 대체로 大同江 유역인 동쪽에 준령이 솟아있고, 북쪽으로 큰 강이 흐르고, 서쪽은 창해가 넓고 끝없이 펼쳐지고, 남쪽은 지세가 험한 慈悲嶺이 앞에 가로놓여있다. 그리고 平壤은 이 강의 중류 유역에 위치해서 남북의

요충에 해당하고 해륙교통의 주축을 차지한다. 이것은 실로 산과 강이 사방으로 막힌 땅으로서 王者가 자리잡아 기업을 열고 기초를 세울만한 곳이다. 그리고 이것을 왕검성이라 이름붙인 것이 또 그 지세가 빼어나단 의미에 잘 부합한다. 『周易』 上象傳을 살펴보면 “習坎은 險이 거듭한 것이니 물이 흘러도 차지 않으며 險한 곳을 가도 그 信을 잃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통하는 것은 곧 剛이 中에 있기 때문이고, 行하면 尙함이 있음은 往하면 功이 있는 것이다. 天險은 오를 수 없는 것이고, 地險은 山川과 丘陵이다. 王公은 險을 베풀어서 그 나라를 지킨다. 險의 때를 사용함이 크도다.”¹¹⁴⁾라고 적혀 있으므로 왕검성의 이름은 아마 이 글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후대인 고려시대에 女眞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동북 경계에 公險鎭이라고 칭하는 성을 쌓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이름도 역시 『주역』의 윗 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왕검성에 관한 위와 같은 고증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왕검성의 건설이 象傳이 지어진 후 즉 戰國 시대 이후일 것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명칭이 箕氏朝鮮왕이 선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衛滿이 이름붙인 것인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史記』 조선전은 단순히 위만이 왕검성을 거점으로 왕이 된 것을 기록한 것에 그쳤으므로, 이 글만으로는 아직 이 성이 과연 기씨 왕조 때부터 이미 같은 명칭이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箕子 왕조의 왕명이 모두 『주역』의 글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왕검성의 명칭의 기원을 추측하는데 좋은 예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시험삼아 생각해 보면 秦 始皇帝 때에 조선에 군림한 사람을 沮라고 한다. 그리고 沮는 실로 『주역』의 卦 이름이다. 또한 沮의 아들들 準이라고 한다. 이 왕의 이름은 『주역』 繫辭 上傳에 “易은 天地와 더불어 準함이니, 故로 天地의 道를 彌綸할 수 있다.”¹¹⁵⁾라고 적혀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또 『주역』 下經을 보면 “六

114) 『周易』권11, 坎. “習坎 重險也 水流而不盈 行險而不失其信 維心亨 乃以剛中也 行有尙 往有功也 天險 不可升(也) 地險 山川丘陵也 王公 說險 以守其國 險之時用 大矣哉.” (1986년 影印版 保京文化社판 『주역』에 근거해 방점 및 ‘也’를 보입함. 이하 보입 및 교정은 모두 보경문화사판에 근거함)

五는 箕子の 明이 夷해짐이니 貞함이 이롭다.”¹¹⁶⁾라고 적혀있고, 그 下象傳에 “箕子の 貞은 明을 息할 수 없는 것이다.”¹¹⁷⁾라고 적혀있으므로, 조선국의 시조로 전해지는 기자도 또한 『주역』에 기록된 인물이다. 그리고 종래 조선국이 周초에 殷의 遺臣 기자가 창설한 것이라고 믿어진 것은 伏生の 『尙書大傳』에 “武王이 箕子の 囚刑을 풀어주니, 箕子가 朝鮮으로 달아났다. 武王이 그것을 듣고 그로 인하여 朝鮮에 봉하였다.”¹¹⁸⁾라고 적혀있고, 『사기』(권38) 宋世家에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했다”¹¹⁹⁾라고 적혀있고, 『漢書』(권28 하) 지리지에 “箕子가 떠나 朝鮮으로 갔다”¹²⁰⁾라고 적혀있고, 또 『魏志』 韓傳에 인용된 『魏略』의 글에 “옛적 箕子の 후예, 朝鮮候 云云”¹²¹⁾이라고 적힌 것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책은 모두 후세 사람이 편찬한 것이고, 秦 이전의 글에는 결코 그러한 것을 적지 않았다. 또한 조선의 이름이 사적에 보이는 것은 戰國 말기의 책이라고 알려진 『國語』가 시작이므로 기자를 조선의 시조라고 하는 전설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어야 할 여지가 크다. 생각건대 기자가 역사적 인물로 게다가 유명한 현인임은 孔子가 『論語』에 그를 殷의 三仁¹²²⁾ 중에 들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를 조선국의 시조로 만들어낸 것은 戰國 시대에 조선 반도를 근거로 삼은 箕子의 선조가 자기 가문의 문벌을 높이기 위해 당시 그들이 가장 애독하던 『주역』에 보이는 기자를 빌려와서 그 계보를 장식하는 용도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국의 시조 기자를 시작으로 그 후예인 沮 및 準의 이름이 모두 『주역』과 관계가 있으므로, 왕검성의 명칭도 또한 여기에서 창안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결코 무모한 말은 아닐 것이다.

115) 『周易』권22, 繫辭上傳. “易 與天地準 故 能彌綸天地之道.”

116) 『周易』권13, 明夷. “六五 箕子之明夷 利貞.”

117) 『周易』권13, 明夷. “箕子之貞明 不可息(也).” (‘也’를 보임)

118) 『尙書大傳』, “武王釋箕子之囚, 箕子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119) 『史記』권38, 宋微子世家. “武王(乃)封箕子於朝鮮.” (‘乃’를 보임)

120) 『漢書』권28 下, 地理志 下. “箕子去之朝鮮.”

121)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昔箕子之後朝鮮候.”

122) 殷末의 세 賢人인 微子, 箕子, 比干을 가리킨다.

이 외에 古朝鮮의 지명에는 『주역』에 출전을 가지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위만 때에 조선의 속국이 된 臨屯國 즉 漢의 임둔군의 이름은 『주역』의 臨 및 屯의 괘를 취한 것일 것이며, 또한 낙랑군의 속현 屯有의 이름도 屯의 괘에서 나왔고 여기에 有라는 글자를 붙인 것은 大有라는 괘 이름과¹²³⁾ 같은 속어일 것이다. 帶水 유역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舍資縣의 이름은 『주역』의 上象傳에 “지극하구나. 坤元이여. 萬物이 資生하니 이에 순순히 承天하도다. 坤은 厚하여 物을 신고 있으니, 德이 舍해짐이 旡彊하며, 舍弘光大하여 品物에 咸亨한다.”¹²⁴⁾라고 적혀있는 구절에 따랐을 것이며, 또한 昭明縣의 이름은 下象傳에 “명이 地上에 나온 것이 짝이다. 君子는 이로써 스스로 明德을 밝게 한다.”¹²⁵⁾라고 적혀있는 것에 따랐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昭明星의 이름을 취했을 것이다. 鏤方縣, 帶方縣의 方은 既濟卦조에 “九三是 高宗이 鬼方을 쳐서 三年만에 그것을 이겼다. 小人은 쓰지말라.”¹²⁶⁾라고 적힌데 보이는 鬼方の 方과 같은 것이고 鬼方の 鬼는 28宿 중 南方 7宿의 하나인 鬼宿을 가리키는 것으로 鬼方이라는 것은 鬼宿의 方이라는 뜻일 것이며,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로 鏤方이란 西方 7宿의 하나인 婁宿의 方이라고 하는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婁方이라고 해야 할 것을 鏤方이라고 쓴 것은 西方은 金氣에 속한다고 하는 五行사상에 따라 고쳐진 것이 아니었을까. 또 遂成縣의 이름은 繫辭上傳에 “參伍하여 變하고 그 數를 錯綜하고 그 變을 통하여 드디어 天地의 文을 이루고, 그 數를 極하여 드디어 天下의 象을 定한다.”¹²⁷⁾라고 적혀 있는 글에 따랐을 것이므로, 『後漢書』 郡國志에 이를 遂城이라고 고친 것은 당초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또 당시 대동강을 말해서 列水라고 한 이름은 『주역』의 같은 傳에 “乾坤은 易이 緝한 것이다. 乾坤이 列을 이루니 易이 그 中에 세워진 것이다.”¹²⁸⁾라고 적혀

123) 원문에는 ‘封名’이라 되어 있지만, 문맥상 ‘卦名’의 오류일 것이라 생각되어 수정하였다.

124) 『周易』권2, 坤. “至哉 坤元 萬物 資生 乃順承天 坤厚載物 德合旡彊 舍弘光大 品物 咸亨.”

125) 『周易』권13, 晉. “明出地上 晉 君子 以 自昭明德.”

126) 『周易』권21, 既濟. “九三 高宗 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127) 『周易』권22, 繫辭上傳. “參伍以變 錯綜其數通其變遂成天地之文 極其數 遂定天(下)之象.”
(‘之下’를 ‘下之’로 교정함)

있고 下傳에는 “八卦가 列을 이루니 象이 그 中에 있다.”¹²⁹⁾라고 적힌 것에 따랐을 것이다. 『한서』(권28하) 지리지 낙랑군조를 보면 그 속현 呑列의 주석에 “分黎山이다. 列水가 나오는 곳이다. 서쪽으로 黏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820리를 간다”¹³⁰⁾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列을 pol, pori라고 말하므로 分黎山의 이름은 이 pori의 상대음으로 列의 토착어일 것이며, 후세 隋唐 시대에 이르러 이 열수를 漢 때 압록강의 명칭인 溟水和 혼동한 것은, 토착어의 pori(poi)가 패수와 음성이 비슷하기 때문은 아닐까? 만약 이상의 해석과 같이 『한서』 지리지에 보이는 지명 또한 『주역』의 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 명칭은 漢 4군이 설치된 당시에 이름을 정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기씨 시대부터 이미 불려온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쓴 것에 지나지 않을까? 이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만, 漢 4군이 위씨조선의 영역을 포함시킨 지역에 설치된 것은 논할 것도 없고 위씨의 조선 본국이 기씨로부터 약탈한 것에 다름아님을 생각하면, 이에 해당하는 낙랑군 내의 지명 중 『주역』의 글에 연고를 가지는 것은, 적어도 기씨 시대의 명칭에 따른 것이라고 추측해도 되지 않을까.

조선 4군 중 진번·임둔의 2군은 조선 시대에 이미 알려진 國의 이름을 군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玄菟는 당시에 보이지 않는 명칭이므로 어쩌면 武帝 때에 새로 세워진 군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현도군의 이름은 임둔군과 같이 그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이 군은 낙랑군의 치소로부터 동쪽 방향에 위치해서 12支獸 가운데 菟의 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玄菟의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닐까? 이 문제는 12지수의 기원과 관계가 있어서 문화사면에서 볼 때 커다란 흥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해 상세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또한 결코 쓸모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漢 때 조선 반도의 지명 중에 12지수의 방위에 해당하는 것이 오직 玄菟郡 뿐이 아니

128) 『周易』권22, 繫辭上傳. “乾坤 其(易)之緼邪 乾坤 成列而易 立乎其中矣.” (‘易’을 보입함)

129) 『周易』권23, 繫辭下傳. “八卦 成列 象在其中矣.”

130) 『漢書』권28 下, 地理志 下. “分黎山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라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남쪽 방향에 위치하는 三韓國의 명칭이 또한 12支 및 12지수의 방위와 합치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이 추측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 『後漢書』 및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漢魏 시대에 조선 반도의 남부는 馬韓·辰韓·弁韓의 세 나라로 나뉘었으며, 마한은 낙랑군으로부터 남쪽에 위치하고 진한은 동동남 쪽에 해당하고, 변한은 동남남 쪽에 자리했다. 이것을 12支의 방위로 생각하면 동남쪽은 辰·巳로서 짐승 간지의 龍·蛇에 해당하고, 남쪽은 12支의 午로써, 짐승 간지의 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낙랑 혹은 고조선의 漢人은 그 군의 치소 혹은 군의 도읍으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하는 韓國을 진한이라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남쪽에 해당하는 韓國을 마한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예에 따르면 변한은 巳韓 혹은 蛇韓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가 필요하다. 丁若鏞은 『大韓疆域考』(권2) 弁韓考조에서 이 나라 이름의 뜻에 대해

“鏞이 살펴보건대 弁은 駕洛이며 駕洛은 伽耶이다. 동방의 풍속에 무릇 冠幘의 꼭대기가 뾰족한 것을 일러 弁이라 하고 또한 이르길 駕那라 했다. 지금 禁府의 皂隸(羅將이라 칭한다) 및 郡縣의 侍奴(及唱이라 칭한다)가 역시 꼭대기가 뾰족한 幘을 쓰고 이름을 駕那라 하고, 또한 이르길 金駕那라 하니, 方言이 流傳하는 것은 반드시 근본이 있는 것이다. 新羅 때에 駕洛國이 지금의 金海에 있었는데 혹은 加耶라 하고 혹은 伽耶라 하니, 이는 곧 弁辰의 總王이다. 반드시 그 巾幘을 특히 꼭대기가 뾰족하게 만든 까닭으로 駕羅國이라 이름하여 불렀는데, 中國人이 그것을 번역하니 즉 弁辰이라 이르게 되었다. 그 마지막 왕인 仇亥가 新羅에 투항한 이후, 그 나라를 이름하여 金官이라 하니, 金官은 金冠이고, 金冠은 金駕那이며, 駕那가 弁辰이 됨을 어찌 족히 의심하겠는가.”¹³¹⁾

131) 『大韓疆域考』 권2, 弁韓考. “鏞案弁者駕洛也 駕洛者伽耶也 東俗凡冠幘之尖頂者通謂之弁 亦謂之駕那 今禁府皂隸(稱羅將)及郡縣侍奴(稱及唱)猶戴尖頂之幘 名之曰駕那 亦謂之金駕那 方言流傳 必有所本也 新羅時駕洛國在今金海 或稱加耶 或稱伽耶 此乃弁辰之總王也 必其中幘特爲尖頂之制 故號之曰駕羅國 而中國之人譯之以文 則謂之弁辰也 及其末王仇亥投降新羅之後 名其國 曰金官 金官者金冠也 金冠者金駕那也 駕那之爲弁辰尙足疑乎.”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라고 주장했지만 과연 그럴까. 『위지』 변진조를 살펴보면 “弃辰과 辰韓은 雜居하고 또한 城郭이 있으며, 衣服과 居處가 辰韓과 같고, 言語와 法俗이 서로 비슷하다”¹³²⁾라고 적혀 있으므로, 머리장식과 의복 같은 것은 변한·진한이 모두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정약용의 주장은 결국 부회임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한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韓語에서는 蛇를 pai-yam 비얌(payam)이라고 하고 弃의 漢字音은 pan 또는 pon, 國字音은 ben이므로 弃이란 글자는 아마도 이 토착어의 상대음으로서 蛇의 뜻이 될 것이다. 변한은 진한과 마한의 사이에 있어서 낙랑군으로부터는 곧바로 巴 즉 蛇의 방향에 해당한다. 만약 이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변한도 역시 다른 두 韓과 같이 변한인 자신이 칭한 것이 아니라 낙랑 또는 조선의 속민이 그 남방의 이웃 민족을 부른 칭호인 것이다. 우리는 물론 이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믿고 있지만, 지금 만약 이 견해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같이 삼한의 나라 이름을 정할 때에 진한이 12지를 따르고, 마한이 12지수를 따르는데, 변한이 토착어를 따른 것은 다소 온당하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고 오직 이 이유만을 가지고 삼한의 명칭을 12지 및 12지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 거듭 생각하건데 낙랑의 漢人이 마한을 부를 때 12지수에 따른 것에 반해서 진한을 부를 때 12지로 한 것은 龍이 원래 漢人이 신령스런 짐승으로서 높이 떠받드는 짐승이므로 고의로 이를 기피한 것은 아닐까. 또 살펴보면 『鷄林類事』에 열거된 어휘에 따르면 高麗의 말에 龍을 稱칭(cing)이라고 해서 그 음이 辰과 비슷한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辰의 漢字音은 sin이지만, 그 옛 음이 cin일 수 있는 것은 『위지』에 辰韓의 다른 이름을 秦韓이라고 했고, 『華東正音』에 따르면 辰과 秦은 같은 음으로서 모두 cin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진한은 토착어 cing-han 稱韓(즉 龍韓)의 상대음인지도 모른다. 또한 韓語에서 馬를 mal이라고 했으므로 마한은 토착어 mal-han(즉 마한)의 음

132)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弃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역이라고도 추측된다. 정말로 그렇다면 마한, 진한, 변한 모두 韓語 mal-han, pai-yam-han, c'ing-han의 상대음으로서 동일하게 12지수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이상에서 고증한 바에 따라 삼한국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명칭이 또한 이 12지수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면, 당시 낙랑군의 동쪽 즉 唃의 방위에 위치하는 현도군의 이름이 또한 이 12지수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결코 무모한 말은 아닐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이 역측이 다행히 정확한 것이라면 12지수를 12지에 배당하는 것은 前漢 武帝 때에 이미 행해진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추측은 과연 다른 역사상의 사실과 모순되는 점이 없을까?

중국의 학자 중에서 12지수의 기원에 대해 논증한 사람은 王應麟과 趙翼 두 사람이라고 한다. 왕응린은 그의 저서 『困學紀聞』에서 몇 차례 이 문제를 논급했을 뿐이지만, 조익은 그의 명저 『陔餘叢考』(권34 8丁甲 10丁乙)에 “十二相屬起於後漢”라는 제목을 붙여 다소 상세하게 고증한 바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동양학자 E. Chavannes씨는 突厥의 12짐승 간지(Lecycle Ture des douze animaux)라는 제목의 논문을 『通報雜誌』 Vol. VII.(pp.51~122, 1906)에 게재했는데 조익의 고증을 골자로 하고 여기에 동서의 기록을 인용해 증명하여 매우 유익한 논문을 학계에 제공했다. 그런데 조익은 宋 시대의 기록에서 근데근데 보이는 것에 따라 예증을 들고 점차로 윗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後漢 시대의 문서에 이르러 그것보다 이전의 서적에 증거가 없는 것을 이유로 12相屬이 後漢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단정했다. 지금 그 전문을 게재하기엔 번잡하므로 이 고증의 요지인 최후의 부분만을 전재하겠다.

王子年拾遺記에서 鄭康成의 꿈에서 공자가 말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今年은 歲가 辰에 있고 明年은 歲가 巳에 있다.” 깨어난 뒤에 讖書와 맞춰 보고 그 수명이 다한 것을 알았다. 歲가 龍과 蛇에 있으면 賢人이 탄식한다 라는 말이니, 이는 後漢 때의 일에 보이는 것이다. 그 때 蔡邕의 月令論에서 이르기를 12辰이 한바퀴 돌 때 5時에는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먹었다고 했다. 또 12物은 論衡에 보이는데 物勢篇에서 말했다. “五行의 기운

은 서로 賊害하는데, 寅은 木이니 짐승으로는 虎이며, 戌은 土인데 짐승으로는 犬이며, 丑과 未는 또한 土인데, 丑의 짐승은 牛, 未의 짐승은 羊이다. 木은 土를 이기므로 犬과 牛羊은 虎에게 굴복하게 된다. 亥는 水인데 짐승으로는 豕이며, 巳는 火인데 짐승으로는 蛇이며, 子는 또한 水인데 짐승으로는 鼠이며, 午는 또한 火인데 짐승으로는 馬이다. 水는 火를 이기므로 豕는 蛇를 먹고, 火는 水에게 해침을 받으므로 馬는 鼠屎를 먹으면 배가 불룩해진다.” 또 四諱篇에서 말했다. “子의 짐승은 鼠이고 卯의 짐승은 兔이다.” 許慎의 說文에서 또 말했다. “巳는 蛇의 형상을 취한 것이다.” 韋輅別傳에서 또한 말했다. “蛇는 辰과 巳의 자리에 부합한다.” 後漢 때에 이러한 說이 甚行했으니 漢 이전의 일을 다시 미루어 생각해 보면 곧 이를 언급한 것이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데, 이는 본래 북방에서 일어난 풍속인데, 漢 때에 이르러 乎韓那가 款塞하여 五原에 들어와 살면서 齊民과 서로 섞이니, 드디어 中國에 흘러 전해들어왔을 뿐이다. 王應麟은 庚午를 吉日이라 하였는데, 이미 내 말을 골랐으니 午馬의 증거가 되고, 季冬이 土牛에서 나오는 것이 丑牛의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한 두가지 경우가 합치하는 것을 부회한 것에 따른 것임에 불과하니, 만약 옛적에 이미 이것이 있었다면 子鼠寅虎의 부류가 어찌 經書 중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가. 오직 吳越春秋에 “子鼠가 闔閭를 위해 大城을 쌓았는데 越이 巳地에 있음으로 인해 蛇門을 만들었다. 吳는 辰에 있는데 그 위치는 龍이다. 따라서 小城의 南門 위 높은 처마에 두 개의 鯢를 만들기를 龍角의 모양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漢의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吳越春秋는 後漢의 趙長君이 편찬한 것이니 장군이 부회한 것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어찌 단정하겠는가. 즉 12相屬이 後漢에서 나왔음은 의심할 것이 없다. 더구나 西漢 이전에는 아직도 甲子로써 歲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른바 子鼠丑牛라는 말이 있었겠가. 云云.”¹³³⁾

133) 『陰餘叢考』권34, 十二相屬起於後漢. “王子年拾遺記 鄭康成夢孔子告之曰 起起 今年歲在辰 明年歲在巳 既悟 以讖合之 知命當終 曰 歲在龍蛇賢人嗟 此見於後漢者也 而其時蔡邕月令論 謂十二辰之會五時所食必家人所畜之物 又十二物見論衡物勢篇曰 五行之氣相賊害 寅木 其禽虎也 戌土 其禽犬也 丑未亦土 丑禽牛 未禽羊也 木勝土 故犬與牛羊爲虎所服也 亥水 其禽豕也 巳火 其禽蛇也 子亦水 其禽鼠也 午亦火 其禽馬也 水勝火 故豕食蛇 火爲水所害 故馬食鼠屎而腹脹(也) 又四諱篇云 子之禽鼠 卯之獸兔 許慎說文亦云 巳爲蛇 取象也 韋輅別傳亦云 蛇(者)協辰巳之位 是後漢時其說甚行 更推之漢以前 則未有言及者 竊意此本起於北俗 至漢時 乎韓那款塞入居五原 與齊民相雜 遂流傳入中國耳 王應麟以吉日庚午 旣差我馬 爲午馬之證 季冬出土牛 爲丑牛之證 此不過因一二偶合而附會之 若古已有是 則子鼠寅虎之類 何以經書中絕不見經 惟吳越春秋 子鼠爲闔閭築大城 因越在巳地 故作蛇門 而吳在辰 其位龍也 故小城

王充은 後漢 建武 3년 즉 서력기원 27년에서 永元 9년 즉 서력기원 97년 까지 살았던 사람으로서 後漢이 일어난 것은 建武 원년 즉 서력기원 25년 이므로 그의 저서인 『論衡』이 기록하는 바에 따라 12지수가 이미 後漢 초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익은 後漢 이전의 기록에 절대로 12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외국의 풍속이 중국에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 기원이 匈奴의 呼韓邪單于가 五原의 요새에 머무르던 때 齊人이 배워서 이것을 중국에 전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단정하였다. 『한서』(권94 하) 흉노전에 따르면 호한야선우가 五原의 요새를 두드린 것은 哀帝 元壽 2년 즉 서력기원전 1년의 일이다. 따라서 조익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12지수의 기원은 기원전 1년부터 왕충이 『논형』을 지을 때까지의 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조익이 과연 어떤 책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내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글 중에 그 출전을 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를 알 수 없지만 『사기』와 『한서』가 흉노에 대해서 기재하는 한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들 책을 두루 검토한 바에 따르면 흉노에는 원래 자국 고유의 역법이 없었고 대신 漢의 干支를 채용하여 날짜를 세었던 것 같다. 그 증거는 『한서』 흉노전에 “日上戊己”라 되어 있고 또한 王先謙의 補注에

錢大昭가 말했다 “戊己日을吉日로 삼는다.” 周壽昌이 말했다. “상은 尙과 같다.” 戊己는 天幹에 있고 五六에居하는데, 匈奴가 모방하여 또한 天地中合의 뜻을 취했다.¹³⁴⁾

라고 적혀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흉노가 날짜를 세는데

南門上 反羽爲兩鯢 以象龍角 此則在漢之前 然吳越春秋乃後漢趙長君所撰 安知非出於長君之附會耶 則十二相屬之起於後漢無疑也 況西漢以前 尙未用甲子紀歲 安得有所謂子鼠丑牛耶.” (1963년 初印된 中華書局판에 근거해 방점 및 ‘者’ 보입. ‘也’는 『해여총고』 원문에 없는 글자)

134) 『漢書』권94, 匈奴傳. “錢大昭曰 以戊己日爲吉也 周壽昌曰 上尙同 戊己在天幹居五六 匈奴似亦取天地中合之義.”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10干을 사용했던 것은 분명한데, 漢土에서는 날짜를 세는데 10干에 12支를 배합하여 60旬을 일주기로 할 것을 정했으므로 흉노도 반드시 이러한 제도를 따른 것이다. 또 10간을 오행에 배당할 때, 甲乙은 木, 丙丁은 火, 戊己는 土, 庚辛은 金, 壬癸는 水로서, 戊己는 실로 10干的 중앙에 위치한다. 그리고 오행을 五方에 배정할 때, 木은 동, 火는 남, 土는 중앙, 金은 서, 水는 북으로서 10干的 戊己에 해당하는 土는 실로 오행의 중앙에 있다. 이런 이유로 前漢 元帝 때 서역을 진무하기 위해 戊己校尉의 관직을 설치한 것이다. 이 戊己는 오행에서 土의 방위에 해당해서 천지의 조화로운 기운을 얻었다고 하는 뜻에서 취해졌을 것이며, 그리고 흉노의 풍속에서 戊己日을 높이는 것도 역시 이 지나적 사상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서』 흉노전에 따르면 冒頓單于가 30여만의 기병으로써 漢 高祖를 白登에서 포위했을 때,

그 서쪽은 모두 白馬, 동쪽은 모두 駟馬, 북쪽은 모두 驪馬, 남쪽은 모두 騊馬(師古가 말했다. “駟은 靑馬이며, 驪는 深黑, 騊는 赤馬이다.”)¹³⁵⁾

라고 적혀 있는데, 기마의 배열이 모두 오행의 방위색임을 따라 이를 살펴보면 오행사상이 당시 흉노에게 전해져 정착된 것은 다들 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흉노의 역법 및 오행사상이 모두 중국에서 연원했으므로 조약이¹³⁶⁾ 12相屬의 기원을 흉노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전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약이 12相屬의 기원을 後漢에 둔 것은 앞에서 상세히 기술한 것처럼 고찰이 잘못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를 신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억측에 따라 진한·변한·마한의 이름이 12지수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상은 前漢 말기에 이미 중국에서 행해졌던 것이 된다. 더욱이 三韓國의 사정이 얼마간 상세히 알려진 것은 後漢 이후의 일이

135) 『漢書』권94 上, 匈奴傳 上. “其西方盡白 東方盡駟 北方盡驪 南方盡騊(師古曰 駟 靑馬也 驪 深黑 騊 赤馬).”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136) 원문에는 張翼이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 趙翼의 오류라고 생각되어 수정하였다.

지만 韓國이 前漢 시대부터 이미 세 나라로 나누어진 것은 다음에 인용하는 『위략』의 글을 이유로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右渠가 아직 격파되지 않았을 때, 朝鮮相 歷谿卿이 右渠에게 諫하였으나 쓰여지지 않자, 동쪽으로 辰國에 갔는데, 이 때에 民이 따르는 자가 2천여호였고, 또한 朝鮮眞蕃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王莽의 地皇 때에 이르러, 廉斯鑑이 辰韓의 右渠帥가 되었는데, 樂浪의 토지가 기름지고 人民이 풍요하고 안락하다는 것을 듣고 도망해 와서 항복하고자 하여 그 邑落을 나왔다. 밭 가운데에서 참새를 쫓는 남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말이 韓人이 아니었다. 물어보니 남자가 말했다. “나는 漢人으로 이름은 戶來다. 우리들 1천5백여인이 材木을 베다가 韓의 습격을 받아 사로잡혀 모두 머리칼을 잘리우고 노예가 된지 3년이 되었다.” 鑑이 말했다. “나는 漢의 樂浪에 투항하려 하는데 너희들도 가지 않겠는가.” 戶來가 말했다. “좋다.” 辰鑑가 이로 인하여 戶來를 거느리고 와서 나와 含資縣에 이름에, 縣이 郡에 말하니 郡이 곧 鑑를 동역으로 삼아서 芴中으로부터 大船을 타고 辰韓에 들어가 戶來 등을 데리고 갔다. 함께 항복한 무리 1천여명을 얻었는데 5백인은 죽은 뒤였다. 鑑가 이 때에 辰韓에 따져 말했다. “너희들이 5백인을 돌려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樂浪이 마땅히 1만병사를 배에 태워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辰韓에서 말했다. “5백인이 이미 죽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보상을 치를 뿐입니다.” 이에 辰韓이 1만5천인과 牟韓布 1만5천필을 내어놓았다. 鑑가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바로 돌아가니, 郡이 鑑의 功義를 표창하여 冠幘과 田宅을 내렸다. 子孫이 누대를 지나 安帝 延光4년에 이르렀는데 이로 인해 復除받았다.¹³⁷⁾

137)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至王莽地皇時 廉斯鑑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鑑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可 辰鑑因將戶來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卽以鑑爲譯 從芴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鑑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牟)韓布萬五千匹 鑑收取直還 郡表鑑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貢’을 ‘貢’으로 교정. ‘其’를 보입함. ‘牟’의 경우에는 원저자가 ‘弁’의 오키임을 확인함)

이 글에 牟韓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변한의 잘못된 것이며, 『欽定滿州源流考』(권2) 삼한조에 인용된 『위략』은 오류가 적은 판본으로 보이는데 바르게 이를 변한이라고 기록한다. 그런데 진한·변한의 두 나라가 王莽의 地皇 연간에 알려졌다고 한다면, 가령 마한의 이름이 당시의 사적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나라가 前漢 말기에 이미 존재했음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辰國 즉 진한이 朝鮮을 右渠가 다스리던 때에 한반도의 동남부에 자리잡았다고 한다면 변한·마한의 두 나라도 역시 당시 존재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고찰해 가면 진한, 변한, 마한의 세 나라는 衛右渠 때에 존재했고 따라서 12지수의 제도도 또한 당시 漢人 사이에 행해졌다는 해석이 되지만, 이 결론에 대해 언뜻 보기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辰韓의 다른 이름을 秦韓이라하고 馬韓의 다른 이름이 慕韓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辰韓이 삼국시대에 秦韓이라고도 불렀던 것은 앞서서도 적은 것처럼 『위지』(권30) 동이전에 분명하게 실려 있다. 또한 辰韓·馬韓이 각각 秦韓·慕韓이라고도 불려졌던 것은 『宋書』(권97) 倭國조에 倭國王 珍이 宋朝에 요청한 칭호를 기록하여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고 한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이와 같이 辰韓·馬韓이 또한 실제로 秦韓·慕韓으로 불려진 것을 보지 않거나 말하지 않아도 이들 명칭이 모두 토착어의 상대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진한과 마한의 명칭에만 구애받아 12지수의 기원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억측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지나의 역사에서 비추어보면 漢人은 옛적부터 곧잘 타국의 기원을 자국에서 찾으려 하고 또한 外人을 자국의 신민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렇다면 진한이 원래 낙랑군으로부터 辰의 방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지만 후세에 辰과 秦의 음이 서로 통하는 것에 의해서 辰韓을 秦韓이라고 부르고 마침내 秦韓을 秦나라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부회한 것처럼, 마한은 원래 낙랑군으로부터 馬의 방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것이지만 후세에 馬가 慕와 음성이 서로 비슷한 것을 따라 馬韓을 慕

韓이라고 고침으로써 이 나라의 백성이 중국을 흠모한다는 뜻을 없어 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秦韓과 慕韓의 두 칭호가 漢人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희망에서 후세에 이르러 고안된 부회라고 한다면, 가령 辰韓·馬韓이 또한 秦韓·慕韓으로 불려졌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결코 辰韓·馬韓의 명칭과 12지 혹은 12지수와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될 수 없다.

이상의 고증에 따라 마한의 이름이 확실히 前漢 시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 武帝 元封 2년 즉 서기전 109년에 개설된 현도군의 이름도 또한 12지수에 연유했으리라고 미루어 판단하는 것도 결코 무모한 것은 아닐 것이다. 12지수가 前漢 이전의 기록에 전혀 그 흔적이 적혀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제도는 외국에서 전해져 온 것으로 漢人 자신의 창작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漢人은 과연 어디에서 이것을 전해 받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漢은 武帝 때에 서역의 여러 나라와 교역을 통해 그 문물을 채용하고 역법 등에도 대개혁을 행했으므로, 12지수를 12지에 배당한 것과 같은 것도 역시 이 때의 일이라고 해야 할까. 張騫이 서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거의 서기전 122년으로 현도군의 설치보다 실로 13년이 앞선다. 또 Greek의 Callipos력에서 연원했다고 생각되는 太初曆의 발포는 太初 원년 즉 서기전 104년으로 장건 귀국 후 18년 현도군 설치 후 5년의 일이다. 또 조익 등의 주장에 따르면 지나에서 하루를 12시로 나누는 풍습도 태초력 반포 전후에 있었다고 하므로 12지수의 제도 또한 武帝 때 漢人이 서역에서 배워 얻은 바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飯島忠夫씨의 연구(『東洋學報』제2권 제1호)를 따르면 Callipos력의 일부가 『淮南子』 및 屈原의 「離騷」에도 적혀있다고 하므로 12獸와 같은 것도 역시 武帝 이전에 지나에 전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던 간에 12지수의 제도는 태초력과 마찬가지로 서역의 Bactria 즉 漢이 말하는 바 大夏國 주변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된 것이 아닐까.

과연 그렇다면 당시 서역에서 12지수로 12시를 표시하는 습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할 때, 이에 대해서는 1903년 Franz Boll씨가 『Sphaera』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해서 그 제12장에 ‘DodeKaoros(十二辰) Bianchini의 대리석

단편 및 동아시아의 짐승 간지(Dodekaoros, Marmorfragment des Bianchini und Ostriatische Tiercyclus)’라는 이름붙인 글에서 가장 귀중한 사료를 제공한다. E.Chavannes.(『Le Cycle Ture』, pp.119~122)씨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기원 1세기 후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名을 Teukros, 字를 Babylonia라고 하는 사람이 쓴 Greek글 중에 12辰에 12종의 짐승을 배당한 표가 있다. 이를 ἡ δωδ;χάωρος 즉 12시라고 한다. 그 표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猫	犬	蛇	甲蟲	羊	獅子	牡牛의 일종	牡牛	鷹	猿	새 이름	鱈魚
ὁ αἰλουροσ	ὁ κύων	ὁ ὄφις	ὁ χάνθαρωσ	ὁ ὄνος	ὁ λέων	ὁ τράγος	ὁ τῦρος	ὁ ἰέραξ	ὁ χνοχέφαλος	ἡ ἰβις	ὁ χροχόδε ιλος

그런데 완전히 이것과 같은 12獸가 12국에 배당된 문서가 Vatican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즉 다음과 같다.

2	3	4	5	6	7	8	9	10	11	12
Babylonia	Coppadocia	Armenia	Asia	Ionia	Libya	Italia	Crete	Syria	Egypt	india
犬	蛇	甲蟲	羊	獅子	牡牛의 일종	牡牛	鷹	猿	Ibis (새 이름)	鱈魚

또한 Boll씨의 말에 따르면 Louvre의 박물관에는 Bianchini의 혼천의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그 위에 기록된 7獸의 순서가 위의 두 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 기념물은 1705년에 Rome의 유적 Aventinus 언덕에서 발견된 것으로 Greek 및 Egypt의 사상을 절충한 좋은 표본이며 그리고 Fröhner씨의 감정에 따르면 이 유물 제작의 연대는 기원 2세기를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12지수의 명칭을 대강 훑어보면 바로 그 Egypt의 그것에 생각이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Kantharos(甲蟲의 일종) Ibis(새의 이름) 및 鱈魚는 이 나라 고유의 짐승인데다가 12獸는 모두 이 나라 사람들이 영물로 尊崇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짐승 간지는 원래 이 나라 사람의 창의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말할 때, Boll씨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이 추측을 부정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12지수가 Egypt에 나타난 것은 후세의 일로서 上代의 문화에서는 전혀 그 흔적이 적혀있지 않고, 또한 이 표는 12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12辰은 Egypt의 발명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다시 주장하여 짐승 간지는 원래 Chaldea인의 창작과 관계가 있고 Babylon인이 12星을 나타내는 부호로 또 적도, 시일, 연월의 12分을 나타내는데 사용한 것을 Egypt의 점성가가 이를 본국에 전해서 본래의 12獸를 대신하여 자국인이 존송하는 신령스런 짐승 12神을 가지고 한 것일 것이며, 그렇다면 오늘날 동방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행해진 짐승 간지는 오히려 Chaldea의 원시적 형태를 갖추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Chavannes씨는 조익의 주장을 따라 짐승 간지의 본원을 흉노에 두어 Boll씨의 주장을 반대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Boll씨의 Chalea설에 찬동한다. 다만 지나인은 그 짐승 간지를 Chaldea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Hirth씨도 생각했던 것처럼(『Nachworte zur Inschrift des Tonjukuk』, p.121) 중앙아시아에서 Greek인이 건설한 Bactria국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리라.

한편 지나에서의 짐승 간지의 제도는 Bactria국으로부터 도래했다고 믿어 지지만, 거듭 살펴 연구해야 할 것은 Bactria인이 사용한 짐승 간지의 명칭이 모두 지나의 그것과 같은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Chaldea의 짐승 간지가 Egypt로 건너가 이 나라 사람이 존송하는 12神獸로 변환된 것처럼, 이 짐승 간지는 지나에 전해지자마자 漢人の 취향에 따라 다소의 변경이 가해졌을 것이다. 지나에서 행해지는 12獸 중에 牛馬羊鷄狗猪는 태고적부터 漢人이 6畜으로 존중한 동물로서 『주역』의 8괘에서 8畜에 배당되는데 이 6畜에 龍과 雉를 더해서 그 숫자를 갖춘 것은 『주역』의 說卦傳에 “乾은 馬, 坤은 牛, 震은 龍, 巽은 鷄, 坎은 豕, 離은 雉, 艮은 狗, 兌은 羊이 된다”¹³⁸⁾라고 적혀있는 것에서 알 수 있으므로 짐승 간지 12

138) 『周易』권24, 說卦傳. “乾爲馬 坤爲牛 震爲龍 巽爲鷄 坎爲豕 離爲雉 艮爲狗 兌爲羊.”

獸 중에 7獸은 漢人의 습속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7獸을 제외한 다른 5獸가 서역에서 전래한 것을 전부 이어받아 그대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漢人이 다시 선정할 것인지는 아직 명료하지 않지만, 지나의 12獸가 많은 지나인의 선택에서 나온 것은 거의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동방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는 짐승 간지가 Chaldea의 원형을 전해 받았다고 하는 Boll씨의 주장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늘날의 安南, 暹羅, 조선, 日本 등에서 행해지는 짐승 간지가 지나에서 전래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Persia, Turc, Mongol 등에서 행해지는 짐승 간지라고 하더라도 Chaldea 혹은 서역의 다른 한 나라로부터 직접 전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국으로부터 저들 나라로 유입된 것이다. 예를 들면 돌궐의 비문에 보이는 짐승 간지의 명칭은 lui(龍) jilan(蛇) koi(羊) büčün(狼) yt(犬) algazyn(猪)의 6獸에 그치지만 그 전체 목록이 漢土의 짐승 간지와 같아야 할 것임은 다른 Turc 민족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에 따라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서』(권217) 點戛斯(kinghiz) 傳조에 “해의 처음을 일러 茂師哀라 하고, 三哀를 一時라 하고, 12物로써 해를 기록하는데, 해가 寅에 있으면 곧 虎年이라고 한다”¹³⁹⁾라고 적혀있는데 이 12物이 지나의 12獸와 같은 것임은 寅歲를 虎年이라고 하는 것에서 살펴 알 수 있다. 또한 『太平寰宇記』(권113) 何國조에 『西域記』를 인용해서 “해를 기록할 때 卯酉辰巳를 알지 못하고, 오직 鷄兔龍蛇로써 헤아린다”¹⁴⁰⁾라고 적고 있으므로 何國 즉 Bokhara는 隋唐 시대에 漢의 12獸를 가지고 해를 기록한 것이 된다. (Hirth, 『Nachworte zur Inschrift des Tonjukuk』, p.127) 또한 Müller 씨가 Sogd어로 쓰인 마니교 문서를 번역한 것을 보면 唐 때에 그 교도는 漢의 10千에 예의 12獸를 배합해서 해를 썼다. (『Die Persische Kalendarausdrucke in Chinesischen Tripitaka』) 후대로 내려와서 『元朝秘史』를 보면 兔兒羊·兒鼠·兒

139) 『新唐書』권217, 點戛斯傳. “謂歲首爲茂師哀 三哀爲一時 以十二物紀年 如歲在寅則曰虎年.”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140) 『太平寰宇記』권113, 何國. “記年不識卯酉辰巳 惟數鷄兔龍蛇.”

등의 이름을 가지고 해를 기록한다. 『輟耕錄』에 따르면 邱處機가 元 太祖에게 올린 상주문에는 “龍兒年 三月日 에 이되다”¹⁴¹⁾라고 적혀있으며, 또 顧寧人的 『山東考古錄』에 따르면 泰山에 元의 碑가 둘 있는데 하나에는 “泰定鼠兒年”이라고 적혀있고 다른 하나에는 “至元猴兒年”이라고 적혀있다.(『陔餘叢考』, 권34. 8丁甲) 이들 예를 보면 蒙古人은 옛적부터 돌궐인처럼 12獸로 해를 셀 것이다. 그런데 12년을 일주기로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해서 불편을 느꼈으므로 몽고인은 후대에 이르러 漢土의 사례를 본받아 12獸에 10干을 배합해서 60년을 일주기로 하는 제도를 채용했다. 그리하여 몽고인이 10干을 만드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지나의 오행을 각각 남녀로 나누어 이것을 10干으로 하는 것, 둘째 오행에 상당하는 5色을 각각 두 색으로 나누어 이것을 10干으로 하는 것, 셋째 漢土의 10干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 중 보통 사용하는 것은 첫번째 법으로서 둘째 법은 단지 曆書에 사용되고 셋째 법은 오직 Ssanan Ssesen이 지은 『蒙古源流』에서 적용된 것이 보일 뿐이다.(Schmidt, 『Geschichte des Ost-mongolen』S. xix-xx) 그런데 이상에 열거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돌궐·몽고 등의 북방민족은 처음엔 단지 12獸로 해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漢土의 습속을 본받아 10干에 12獸를 배합해서 60년을 일주기로 하기에 이른 것은 실로 후세의 일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짐승 간지의 제도가 지나에서 전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생활상태는 매우 단순하여 원래 달력이 없을 정도이므로 그들이 漢土의 문화와 접촉하여 역법을 제정 하기에 이르러서도 오로지 간편한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지 漢土의 12獸만으로 해를 썼지만 그 후 문화도 진전되고 사상도 복잡해지는데에 미쳐 완전히 漢土의 제도를 따라 10干과 12獸를 결합해서 60년을 일주기로 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상의 고증한 바에 다행히 오류가 없다면 12支에 12獸를 배당한 습속은 漢 武帝 때에 이미 존재한 것이므로 고조선 혹은 낙랑군으로부터 남쪽 방위

141) 『輟耕錄』. “龍兒年三月日奏.”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에 해당하는 마한의 이름이 12지수의 방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獸畜의 이름을 가지고 지리상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유독 12지 및 12지수에 따른 것만이 아니다. 漢土에서는 적어도 戰國 시대부터 『주역』의 8괘 및 이에 배당된 8축의 이름을 가지고 방향을 나타내는 습관이 있었다. 게다가 馬는 앞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8축의 하나이므로 고조선의 많은 지명이 『주역』의 글과 관계있음에 비추어볼 때 마한의 이름 같은 것도 어쩌면 또한 『주역』의 8축에 연고를 갖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역』의 8괘 및 8축의 부분을 검토해서 마한의 이름이 과연 이것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그리고 『주역』의 8괘를 8方に 해당시킨 것은 다음에 기록하는 설괘전의 글에 나타난다.

帝가 震에서 나와 巽에서 가지런히 하고, 離에서 서로 보고, 坤에서 致役하고, 兌에서 說하고, 乾에서 싸우고, 坎에서 수고하고, 艮에서 成言한다. 萬物이 震에서 나오니, 震은 東方이다. 巽에서 가지런하니, 巽은 東南이다. 가지런하다는 것은 만물이 깨끗하고 가지런함이다. 離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다. 만물이 서로 보니, 南方의 卦이다. 聖人이 南面하여 天下의 일을 듣고, 밝은데로 향하여 다스리니, 대개 여기에서 取한 것이다. 坤이라는 것은 땅이니, 萬物이 모두 잘길러짐에 이른다. 따라서 坤에서 致役한다 하였다. 兌은 正秋이니, 萬物이 說하는 것이다. 따라서 兌에서 說한다 하였다. 乾에서 싸운다고 했으니, 乾은 西北의 卦이다. 陰陽이 서로 부딪친다고 말했다. 坎이라는 것은 물이니, 正北方의 卦이다. 수고로운 卦이니 萬物이 돌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坎에서 수고한다 하였다. 艮은 東北의 卦이니, 萬物이 끝마침을 이루고, 시작함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艮에서 成言한다 했다.¹⁴²⁾

142) 『周易』권24, 說卦傳. “帝 出午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 萬物 出乎震 震東方也 齊乎巽 巽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 離也者 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 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坤(也)者 地也 萬物 皆致養焉 故 曰致役乎坤 兌 正秋也 萬物地所說也 故 曰說言乎兌 戰乎乾 乾 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坎者 水也 正北方之卦也 勞卦也 萬物之所歸也 故 曰勞乎坎 艮 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 曰成言乎艮.” (‘言’, ‘皆’, ‘也’를 보입함. ‘齊’를 ‘萬’으로 교정함)

이 8괘에 대한 8축은 이미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으므로 지금 그 8축을 8괘 방향에 배당할 때는 馬는 서북, 牛는 서남, 龍은 동, 鷄는 동남, 豕는 북, 雉는 남, 狗는 동북, 羊은 서에 해당한다. 이 8축을 실제 8方に 적용한 것은 漢土 자신의 사적에서는 아직 그 예를 볼 수 없지만 漢土 문화의 영향을 받은 夫餘國의 제도에서는 그것이 실시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증거는 『위지』(권30) 동이전 부여조에

나라에 君王이 있다. 모두 6축의 이름으로 官을 삼는데 馬加·牛加·豬加·狗加·犬使·大使者·使者이다. 邑落到 豪民이 있고, 이름이 下戶인 자는 모두 奴僕이 되었다. 諸加가 별도로 四出道를 주관하는데, 大者는 數千家를 주관하고, 小者는 數百家를 주관한다.¹⁴³⁾

라고 적혀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본문에는 6축을 가지고 관직을 삼는다고 되어있지만 그 실제 大官으로 가축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4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4官 즉 4加的 가축 이름은 『周易』의 說卦傳에 보이는 8축의 순서를 따른다. 이 4加는 四出道를 주관하는 제후라고 생각되므로 馬牛猪狗의 4축은 『주역』의 8괘 중 4괘 방향에 해당하는 방면을 다스리는 것에서 그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설패전에 따르면 馬는 乾卦에 속해서 그 방향이 서북쪽이므로 馬加는 부여국의 서북면을 주관하는 제후일 것이며, 牛는 坤卦에 속해서 그 방향이 서남쪽이므로 牛加는 서남면을 주관하는 제후일 것이며, 猪 혹은 豕는 坎卦에 속해서 그 방향이 북쪽이므로 豬加는 북면을 주관하는 제후일 것이며, 狗는 艮卦에 속해서 그 방향이 동북쪽이므로 狗加는 동북면을 주관하는 제후일 것이다. 그런데 乾隆帝는 이 4加的 관명에 대해서 우리와 전혀 견해를 달리한다. 그의 주장은 『滿洲源流考』(권1) 部族조에 실려있으므로 다음에 이를 게재한다.

143)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豬加狗加犬使大使者使者 邑落有豪民(名)下戶皆爲奴‘僕’ 諸加別主四出 道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民’을 ‘名’으로 ‘隸’를 ‘僕’으로 교정함)

그 나라(夫餘)에서는 6畜으로서 官名을 지었는데, 馬加·牛加·豬加·狗加가 있다. 諸加가 별도로 四出道를 주관하고 敵이 있으면 諸加가 스스로 싸우는데, 下戶는 음식을 담당하여 그들을 먹인다. 그렇다고 믿는다면 곧 이른바 諸加라는 것은 어디에서 뜻을 취한 것인가. 史籍에서는 夫餘가 희생물을 잘 기른다고 하니 곧 牧畜이 반드시 번성한 것으로 마땅히 각각 관직을 두어 그를 주관케 하였다. 또한 지금의 蒙古에서 羊을 전담하는 관직을 일러 和尼齊라 하니 和尼라는 것은 羊이며, 馬를 전담하는 것을 일러 摩哩齊라 하니 摩哩라는 것은 馬이며, 馳를 전담하는 것을 일러 特默濟라 하니 特默이라는 것은 駝이다. 모두 기르는 가축에서 그 職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다만 百官 중에 하나 둘이었다. 夫餘의 誌를 쓸 때에 당시의 夫餘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馬와 牛를 담당하는 관원은 반드시 馬家와 牛家로 번역하였을텐데, 드디어 와전되어 馬加와 牛加가 된 것이다. 바로 周禮에 羊人과 犬人이라는 관직명이 있고, 漢 때에 狗監이 있었던 것과 같을 뿐이다.¹⁴⁴⁾

만약 그의 해석대로라면 마가의 관직은 몽고의 摩哩齊(morici), 우가는 兀格兒齊(ukerci), 저가는 哈孩齊(khagaici), 구가는 那孩齊(nogaici)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여의 4가는 한 나라의 네 지방을 주관하는 대관으로서 摩牛豕狗를 관리하는 것 같은 낮은 관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 부여의 별종인 高句麗國에도 加라는 이름을 칭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 모두가 한 나라의 높은 관직인 것은 『위지』(권30) 고구려조에

그 관직을 둘 때에 對廬가 있으면 곧 沛者를 두지 않고, 沛者が 있으면 곧 對廬를 두지 않는다. 王의 宗族에서 大人은 古雛加라 칭할 수 있다. 涓奴部는 원래 國主였으니 지금 비록 王이 되지는 못하지만 適統大人은 古雛加라 칭할 수 있고 또한 宗廟를 세워 靈星社稷에 제사지낸다. 絶奴部는 대대로 왕실과 혼인 하였으므로 古雛의 호칭을 더한다. 諸大가가 또한 스스로

144) 『欽定滿州源流考』권1, 部族. “國(夫餘)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豬加狗加諸加別主四出道有敵諸加自戰 上戶擔食飲食之 信如其言 則所謂諸加者何所取義乎 史稱夫餘善養牲 則畜牧必蕃盛 當各有官以主之 猶今蒙古謂典羊之官曰和尼齊 和尼者羊也 典馬者曰摩哩齊 摩哩者馬也 典馳者曰特默濟 特默者駝也 皆因所牧之物以名其職 特百官中之一二 誌夫餘者 必當時有知夫餘之人 譯其司馬司牛者 爲馬加 遂訛爲馬加牛加 正如周禮之有羊人 漢之有狗監耳.” (『滿洲歷史地理』 원문의 방점을 그대로 인용함)

使者, 阜衣, 先人을 두고 명단을 모두 왕에게 보내는데 卿大夫의 가신과 같다.¹⁴⁵⁾

이라고 적혀있는 것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각하면 부여어의 加는 몽고어의 汗(khan)에 해당시킬 수 있는 존칭으로서 결코 건륭제가 생각한 것처럼 몽고어의 齊(ci) 혹은 중국어의 家에 비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해석이 이미 이처럼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부여의 4加的 명칭을 가지고 『주역』의 8畜에서 나왔다고 한 견해는 아마 정확할 것이다. 정말로 그러하다면 부여와 동시에 조선 반도 남부에 자리잡은 마한의 이름 같은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8畜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역』에서 馬의 방향은 서북쪽이므로 낙랑군의 남쪽에 위치한 마한과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마한과 인접한 변한·진한의 두 나라 및 현도군의 이름이 모두 12지 혹은 12지수와 관계있는 것을 가지고 이를 생각하면 마한의 이름도 또한 12지수에 따라 얻어졌을 것이다.

투고일 : 2011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2일

145) 『三國志』권30, 魏書30, 東夷傳.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王之宗族 其大人得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諸大加亦自置使者阜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